

겨자씨.

KWANGSUNG MUSTARD SEED MAGAZINE

2026
WINTER
VOL.57

곽승현 위임목사, 새로운 6년

올리브 프로젝트 All-Live Project

모두가 살아나는 교회, 모두를 살리는 교회

Issues & Trend

AI 시대, 사람의 길을 잃지 않는 법

조서환 박사

AI가 바꾸는 세상, 126개의 목소리

『겨자씨』 편집부

광성은 천사를 입는다

교인 모델 화보 공개!

착용 샷 & 가격 공개
당신의 선택으로 사랑을 나누세요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를 살리는 올리브 All-Live

너희가 살아나리라

전교인 40일 올리브 특별새벽기도회



성경은 ‘40’이라는 숫자를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앞에 놓는다.

이스라엘의 40년, 예수님의 40일 금식, 모세와 엘리야의 40일.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사람을 다듬고, 세우고, 새 길로 이끄셨다.

‘40일’은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시험을 지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시간이다.

노아에게 새 세상이 열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세우셨다.

그리고 지금,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전교인 40일 올리브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이 거룩한 40일의 은혜를 함께 걸어가고 있다.



2025년 12월 1일(월)-2026년 1월 9일(금) | 월~금 새벽 5시/토 오전 7시 | 장소 거룩한빛광성교회 광성홀 | 강사 박승현 위임목사

C O N T E N T S

Kwangsung Special	꿈꾸는 다음세대	크로스로드
06 예수님의 시선	34 꿈담 I 초등1부 특별한 이야기 ‘개인별 반별 심방’	41 크로스로드 I 이해님 정성진 목사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제8대 총장 취임
08 신년 인터뷰 박승현 위임목사 기도로 여는 새로운 6년, 올리브 프로젝트(All-Live Project)	35 꿈담 I 초등5부 통합예배, 아이들의 마음에 예배를 심다	
13 2025 선한 사마리아인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36 36 꿈담 I 중등부 졸업 선배들이 들려주는 중등부 생활 꿀팁	문화 스케치
14 선교지 소식 I 정준(필리핀) 바쿨교회의 열매	38 꿈담 I 고등부 떠나는 발걸음, 이어지는 시작 방성빈 목사님 인터뷰	72 사진 한 컷, 마음 한 장 I 전영의 함께 날아오르다
16 희망 RUN I 마라톤선교팀 달리면 4가지 행복이 널클째	66 라이프 토크 I 김다빈 기다림과 침묵의 순간 속에서	74 명수필 산책 I 김은숙 유경환「두물머리」
	68 빛청년부 2 I 조희성 슬기로운 신앙생활 Q&A 사랑, 묻고 배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맺기 <김다은 전도사 편>	76 제철 간식 I 고예님 고구마로 채운 달콤한 하루
	2026 특별기획	78 광성은 천사를 입는다
	40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① I 김일석 한경직	80 BOOK AND BOOK
		81 함께 배워요 I 수어
		82 성경 컬러링 I 조혜리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84 웹툰 I 김주희 거룩양, 광성군



표지 사진
우쓰라(김경우)
제주, 12월의 동백

겨자씨.

2026 WINTER
VOL.57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5대 비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세웁니다

3대 목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 사회와 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 비전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 사회에서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양·파주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한다.
나아가 한국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고
남한 최북단에서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예수님의 시선 빛과 생명

빛과 생명은 언제나 가장 메마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두 장의 풍경에 스며든 그 조용한 순간들을 함께 바라봅니다.



빛을 입어 다시 살아나는 땅

사진 | 이용주 청년기자



그분의 생명으로 피어난 우리

사진 | 전영의 기자



New Year 2026
거룩한빛광성교회 표어

모두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9>

곽승현 위임목사
‘전교인 40일 올리브 특별새벽기도회’

기도로 여는 새로운 6년, 올리브 프로젝트 All-Live Project

글 | 임보미 기자
사진 | 이용주·전영의 기자

2026년 한 해, 그리고 지난해 위임목사 재신임 이후 앞으로 6년간의 사역 기간 동안 거룩한빛광성교회를 이끌어 갈 화두인 ‘올리브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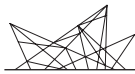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를 살리는 올리브(All-Live) 사역을 위해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전교인 40일 올리브 특별새벽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지난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올리브 특별새벽기도회에는 매일 약 2000여 명의 성도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광성의 새벽을 깨우고 있다. 기도의 여정을 이끌고 있는 곽승현 위임목사에게 올리브 프로젝트를 여는 특별새벽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40일 작정기도 중 하나님께 떠오르게 하신 비전이
‘올리브(All-Live)’다



3040 조이풀 가정과 함께 드린 새벽기도회 5일째.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예배에 참석한 어린 자녀들을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품에 안고 축복기도를 해 주었다. 광승현 위임목사는 자신을 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요셉처럼,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푸른 의의 나무로 자라가기를 축복했다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된 올리브의 마음

“성경에서 올리브는 창세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가 일어나고,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은 40일간 물 위를 떠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내려 보낸 비둘기가 세 번 만에 물을 발견해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오지요. 그때 물고 온 나뭇가지가 올리브나무의 가지입니다. 이 올리브 가지는 심판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난 6년간의 사역 후 투표를 통해 성도들의 재신임을 받았을 때, 광승현 위임목사에게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왔다. 앞으로의 6년을 이끌어 갈 막중한 책임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40일간 기도의 골방에서 마음을 올려 드리던 중,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과 함께 ‘올리브’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다. 모두가 살고, 모두를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바로 올리브(All-Live)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첫 마음인 것이다.

어떤 계획도 기도보다 앞설 수는 없기에

“모두를 살리려면 먼저 내가 살아야 합니다. 가정, 직장, 부서, 교회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자세가 ‘살리고 살리나’는’ 것이 된다면, 나로 인해 연결된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계획도 기도보다 앞설 수는 없기에, 광승현 위임목사는 올리브 사역을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음성 앞에 설 수 있다면 올리브 사역은 어느새 당연한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40일간 계속되는 기도회를, 그것도 이른 새벽 시간에 함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새벽기도 첫날 1000명이 넘는 성도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고 온라인(유튜브 실시간 예배)으로도 약 800여 명의 성도가 참여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특별새벽기도를 통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올리브의 사명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순례길과 같은 40일간의 기도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

성도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 감사

광승현 위임목사의 기도는 기도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새벽 4시부터 시작된다. 올리브나무 아래 모아진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 보며 기도하고, 응답함에 모아진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감격의 기도를 드린다. “특별새벽기도를 통해 저에게 찾아온 가장 큰 감사는, 성도들의 삶 속 깊은 내용까지 나누며 그것을 위해 매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영혼의 아픔, 관계와 재정 등 여러 삶의 문제들을 기도 제목을 통해 나눌 때, 성도들의 마음과 깊이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와 가족의 영혼이 살아나고자 하는 갈급함과 소망을 함께 느끼며 한 분 한 분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40일 새벽기도에서 선포되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감사를 경험하고 있다.



새벽 4시, 목회 강단에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광승현 위임목사. 작은 테이블 위에는 성도들이 적어 올린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이를 한 장 한 장 살펴보며 새벽기도회 전후로 기도를 이어 가고 있다. 이러한 기도의 걸음은 40일 새벽기도회 내내 계속되고 있다



2·3층을 가득 메운 성도들.

이번 40일 올리브 특별새벽기도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며 뜨거운 은혜를 나누고 있다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시간

뜨거운 기도로 시작한 2026년은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6년을 이끌어 갈 올리브 프로젝트를 위해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올리브 프로젝트 추진단은 모든 영혼을 살리고 살아가는 사역에 필요한 여러 방법들을 조사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매주 회의를 거듭하며 생각을 모으고 있다.

“우리 교회의 3대 목표(섬기는 교회 ·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 상식이 통하는 교회)와 5대 비전(고양파주 성시본부 · 지역사회 문화 중심 · 세계선교 중심 센터 · 한국교회 개혁 모델 · 북한선교 전초기지)은 변하지 않는 DNA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아내고 전달하는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3대 목표, 5대 비전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도가 되길

곽승현 위임목사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당부한다.

“앞으로 6년간 저의 2기 사역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도님들께 허락받았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자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40일간 기도의 여정을 함께하며 생긴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생각들을 모으면,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는 역사를 우리 앞에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신 ‘모두를 살리는’ 사명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흠뻑 물들여, 살리며 살아가는 기적이 교회 안팎으로 넘쳐나는 새로운 6년이 되길 소망한다.



플로잉데이 Flowing Day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2025 선한 사마리아인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거룩한빛광성교회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역

• 방법

헌금자가 자신의 추수감사절 헌금을 흘려보낼 대상자를 지정

• 이렇게 지출했어요

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범위 지정	한부모	해피월드 통해 지원 10,697,000원
	장애인	
	다문화	
	노인	
	비밀언덕	자립준비 청년 지원 12,340,000원
	통일민	통일민 지원 2,381,000원
	환우	환우 가정 지원 5,610,000원
	지역교회	지역교회 지원 5,040,000원
지정(교인, 부서, 선교사, 형제교회, 타 교회, 타 교인)		55,345,000원
공휴 구제 사역		52,705,750원
합계		144,118,750원

플로잉데이를 통해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1억 4411만 8750원)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흘려 보냈습니다.

바콜교회의 열매

글 | 정준 선교사(필리핀)



1



2

1. 바콜교회 부설 유치원 2. 바콜교회 주일예배

수상가옥 마을에 심어진 작은 씨앗

필리핀의 가을은 한국의 초여름처럼 아침 저녁에는 약간의 온기가 느껴지고, 낮에는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덥습니다. 이곳을 일 년에 20차례가 넘는 태풍과 폭우로 인해 하수가 역류하고 도로와 집이 물에 잠기곤 합니다. 바콜교회가 있는 수상가옥 마을 또한 이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10년 전, 이곳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을 때 수상가옥 마을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여기일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과 기대가 반반 섞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아이들이 찬양과 율동을 따라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해맑게 미소 지으며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평소 먹어보지 못하던 영양죽과 비스킷을 나누어 주면 어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 먹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집에 가져가 가족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삶은 애처롭고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아픔을 뒤로 하고 웃으며 떠드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복음의 가장자리에서 시작

된 작은 선교가 언젠가 복음의 중심까지 이어져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옵니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가 되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며 30명이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 결국 600명에 이르는 부흥의 역사가 그 빈민촌 수상가옥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영롱한 눈망울에서 미래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복음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마음이 바로 ‘아이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꿈나무로 키우는 길이 말씀과 조기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유치원을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난하여 배움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바콜교회 부설 유치원을 세웠고, 코로나 이전까지 매년 80명의 아이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했습니다.



⚡ 태풍 피해 모습



⚡ 물에 잠긴 교회

자라난 제자들, 목자로 준비되다

코로나 이후 정부의 개발 정책으로 수상가옥 마을이 이전하면서 유치원 사역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나익 지역과 카빗 지역에 유치원 두 곳을 세워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유치원을 통해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은 청소년과 청년이 되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며,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감사한 것은 수상가옥 마을에서 자란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와 제자훈련을 받은 아이들 중 4명이 일반 대학과 신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씨앗 가운데 가장 큰 열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반대, 둘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면 직업을 갖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전통이기에, 목회자가 되는 것을 부모가 반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것 역시 재정적인 부담이 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기에 포기하지 마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오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이사야 43:1-2)

돌아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계속되는 사역

오늘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상가옥 마을 주민들을 돌아보기 위해 달려갑니다. 손에는 쌀과 구호 물품을 들고, 바람에 날아간 지붕과 부서진 벽 앞에서 힘없이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고 울고 웃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꺼져가는 곳곳의 어두움 위에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봅니다.



⚡ 수해 지역 구호 물품 준비

달리면 4가지 행복이 너굴재 마라톤선교팀

글 | 전영숙 기자



❧ 봄날, 흐드러진 벚꽃보다 더 화사한 웃음을 짓는 마선팀원들



❧ 마선팀의 기동인 정호석 장로, 김옥현 장로와 송점옥 사모, 임성기 장로



❧ 외부 대회 참가 때도 광성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마라톤선교팀, 다시 뛰기 시작하다

요즘 이른 아침이나 저녁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들이 있다. 혼자든 팀을 이루든 달리기에 진심인 사람들이다. 스포츠도 붐을 타기 마련인데, 광성 마라톤선교팀(이하 마선팀) 회원 증가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데 단순히 유행 때문이 아니라, 마선팀 안에 존재하는 어떤 ‘마력’이 있음을 세 명의 팀원을 만나 확인해 보았다.

마선팀의 시작은 20여 년 전, 교회가 일산 밤가시마을에 터를 잡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간이 흐르며 처음의 열정이 조금 사그라져 명맥만 유지되던 중, 2017년 든든한 기둥이 된 정호석 장로, 임성기 장로, 그리고 팀장을 역임한 조문식 집사, 박종현 집사 등이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초창기 멤버였던 이영준 집사가 팀장을 맡으며 물병 전도, 외부 마라톤대회 참가, 엉뚱발랄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자 팀원들이 호응하며 결속력이 강해졌다.

“상품이 걸린 번개퀴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달리러 나오지 않아도 단톡방에는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몰라요. 한 번 마선팀에 들어오면 못 나가요. 몸이 아파 뛰지 못해도, 바빠서 자주 달리지 못해도 늘 함께한다니까요.”

끈끈함이 만든 힘, 함께 뛰는 즐거움

마선팀의 살림을 맡고 있는 장금준 권사는 꿀차와 대추차를 직접 끓여와 팀원들에게 나누는 것은 물론, 송년모임에는 아낌없이 후원하는 고마운 손길들이 넘쳐나는 것이 마선팀의 끈끈함 그 자체라고 말한다.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구속되기 싫어하는 이들에게 마라톤이 적당하다고 조곤조곤 말하는 임성기 장로는 마선팀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그 이유도 광고 문구 같다. ‘내가 뛰니까 너도 뛸 수 있다.’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도 뛰는데 누군들 못하겠어요. 제가 오래달리기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못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30분만 뛰면 된다.’는 말에 혹해서 왔다가, 건듯이 일산호수공원을 한 바퀴 뛰고 나서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 뒤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달리고 왔는데, 저녁에 집에서 텅굴다가 문득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 중독됐구나.’ 싶더라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30분이면 ‘광성’이라 새겨진 파란색 조끼를 입고 뛰는 마선팀은 코로나 팬데믹도 비껴갔다. 아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더 결속력이 강해졌다. 예배도 드리기 힘들

고 교제도 어려운 시절, 마선팀에서 함께 달리며 신앙을 지키고 교회에서 충전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나갔다. 마라톤은 모이지 않아도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정기 모임이든 외부 대회는 유니폼을 입고 뛰는데, 우리가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뤄지는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라는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요즘 믿지 않는 분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어요.”

스며드는 전도, 이어지는 은혜

신앙이 없거나 다른 교회 성도임에도, 마선팀이 식당 봉사를 하던 날 기꺼이 참석해 준 팀원들이 있었을 정도로 ‘스며드는 전도’의 힘을 느낀다는 박종현 팀장은, 매주 얼굴을 보다 보면 처음엔 어색하다가도 함께 땀 흘리는 가운데 동지애가 생긴다고 말한다. 일 년에 두 번 정도 참가하는 외부 마라톤대회는 힘겨운 도전이 아니라 마선팀에게는 축제의 자리다. 대부분 10km 참가로 완주 후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하면 모든 시름은 사라지고 즐거움만 가득하다.

정기 모임 외에도 혼자 뛰는 일이 많다는 박종현 팀장은, 찬양이나 설교를 들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어 좋으며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특히 마선팀을 추천한다. 함께하면 은혜와 축복, 격려가 있기 때문이다. 달리기가 처음이라 두려워도 걱정할 필요 없다. 마선팀에는 초보자를 위한 전문 트레이너가 따로 있다. 뛰다가 걷다가, 편하게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 슬리퍼만 신고 오지 않으면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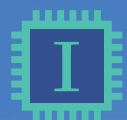
다리를 다치고 나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깨달았던 적이 있다. 마음만 다잡으면 될 일이다. 함께하겠다고 손 내미는 마선팀이 있지 않은가. 나의 한 걸음에 건강, 믿음, 교제, 전도까지 네 마리 토끼가 냉큼 들어온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을 듯하다.



❧ 식당봉사로 즐겁게 서로 나서서 힘을 보탠다

ISSUES & TREND

AI 시대의 인간다움



AI 시대, 사람의 길을 잃지 않는 법

글 | 조서환 박사



AI가 바꾸는 세상,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기획 | 『겨자씨』 편집부



AI 시대, 사람의 길을 잃지 않는 법

글 | 조서환 박사
전 KTF 부사장,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현 AmenA CMO(최고마케팅책임자)
저서 『모티베이터』, 『근성, 끝까지 너를 이겨라』 외



1 새로운 출발

70세의 복귀,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나는 올해 70세의 나이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에이멘에이(Amen A)’라는 새로운 배움의 기업에서 최고 마케팅책임자(CMO)로 복귀했다. 처음 에이멘(아멘) Amen이라는 회사 이름 때문에 확 끌렸다. 이 기업은 비 크리스천들이 컴플레인을 해서 A라는 단어를 덧붙였다고 한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하나님 기업이라는 걸 알았고 나는 과감히 복귀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물었다.

“이 나이에 왜 다시 시작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이 멈출 때 늙는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느꼈다. AI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과 사랑, 기도의 힘으로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일이 내 사명임을 다시 느낀다.

2 기술보다 본질

AI가 바꾸지 못하는 사명

AI는 이미 교실 속으로 들어왔다.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을 채점하며, 개인별 학습 경로를 제시한다. 효율은 높아졌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에 있는 ‘왜 배우는가?’라는 물음은 누가 채워줄까?”

AI가 수학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배움의 감동을 전해줄 수는 없다. AI는 정답을 맞힐 수 있지만,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기술보다 본질을 택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교육 모델은 ‘AI + 인간’이다. AI가 아이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더라도, 교사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음의 피드백을 준다. AI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교사는 사람의 마음을 세운다. 그것이 진짜 교육이며, AI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사명이다.



AI는 신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람의 영혼을 대신할 수는 없다

3 삶의 전환점

수류탄 사고, 그리고 ‘한 손의 기도’의 힘

나는 군 복무 중 수류탄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다. 수많은 수술과 재활의 시간을 보내며 인생이 멈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나는 내 한 손을 바라보았다.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대신, 움직이는 믿음을 붙잡았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다시 쓰였다. 다시 연필을 잡고, 보고서를 쓰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AI는 나보다 훨씬 더 정교한 손동작을 흉내 낼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손의 떨림은 흉내 낼 수 없다. 그 손끝에서 나는 ‘인간다움’의 정의를 배웠다.

4 사랑의 회복력

지금의 아내, 그리고 기도의 능력

절망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준 사람은 지금의 아내였다. 그녀는 한 마디의 비난도 없이, 묵묵히 나를 위해 기도했다. 그 고귀한 기도와 사랑의 힘이,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다움으로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밤마다 조용히 손을 모으고, 나를 생각하며 내 마음을 살피는 그 순간들이 나의 절망을 조금씩 녹였다. ‘사랑은 계산할 수 없고, 헌신은 알고리즘이 아니다.’ 그 헌신의 힘이 나를 일으켰고, 그 믿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다.

AI는 연산으로 최적해를 찾지만, 사람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린다.

그녀의 사랑은 효율이 아니라 헌신의 언어였고, 그 기도는 계산이 아니라 존재를 일으키는 운기였다. 만약 그 사랑과 기도의 복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AI가 아무리 정교해도, 사람의 사랑과 기적 앞에서는 한낱 도구일 뿐이다.

5 현장에서 배운 마케팅 진리

마케팅은 결국 사람의 일이다

나는 애경산업에서, 그리고 KTF에서 수많은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2080 치약’, ‘하나로 삼푸’, ‘애경의 화장품 브랜드 포인트’ 등은 기술이나 자본보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힘에서 출발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말했다.

“이 제품 덕분에 우리 집 찌든 때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보다 고마운 건, 나 같은 평범한 주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다.

“마케팅의 본질은 데이터가 아니라 눈물이다.”

AI는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어도, 눈물의 의미는 계산하지 못한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6 사명을 향한 우리의 도전

‘Global Standard’와 인간 중심의 가치

우리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실현하려는 것은 ‘사고력과 인성 교육’이다. AI는 아이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교사는 그 아이의 마음

의 속도를 읽는다. 그 두 힘이 만나야 진짜 배움이 완성된다.

이것이 내가 꿈꾸는 ‘AI-휴먼 융합 교육’의 방향이다. 기술은 교사의 손발이 되어야 하고, 사람은 그 기술에 영혼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인간 중심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7 신앙의 고백

인간이어야만 가능한 일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AI는 신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람의 영혼을 대신할 수는 없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 능력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때문이다.

‘수류탄 사고를 통해 겸손을 배웠고, 아내의 사랑을 통해 용서를 배웠으며, 신앙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AI가 모든 걸 해주는 세상에서도, 기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사

랑은 인간만이 줄 수 있고, 회복은 인간만이 이룰 수 있다.’ 나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산다. AI가 세상을 효율적으로 만들면, 사랑은 그 세상을 인간답게 만든다.

8 사랑의 힘으로, 여기까지

70세의 나이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나는 또 한 번 배운다. 세상은 변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마지막 인생의 사명을 다하고 싶다. AI가 분석하고 계산하는 시대,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에 남은 시간을 쓰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고백한다.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사랑’만이 ‘AI 시대, 사람의 길’이다.

AI는 답을 계산하지만, 사람은 의미를 만든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사랑만이 AI 시대, 사람의 길이다.



‘사랑’만이 ‘AI 시대, 사람의 길’이다

AI가 바꾸는 세상,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기간 | 2026년 10월 11일 ~ 2025년 11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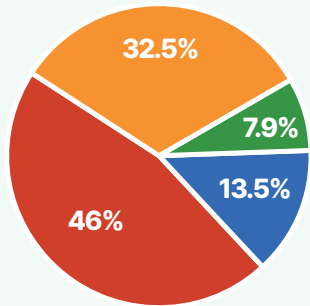
대상 | 10대 ~ 80대

기획 | 『겨자씨』 편집부

2 설문과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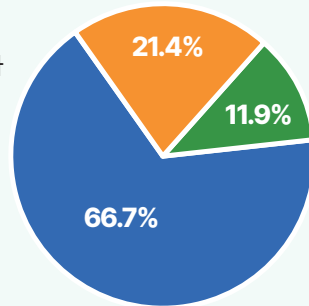
Q1 AI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가끔 사용한다
(검색, 번역, 추천 등)
- 자주 사용한다
(업무, 학습, 콘텐츠 제작 등)
- AI 없이는 불편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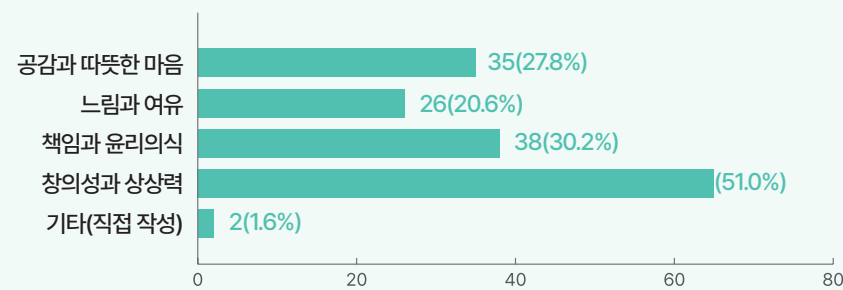


Q2 AI의 발전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다고 느끼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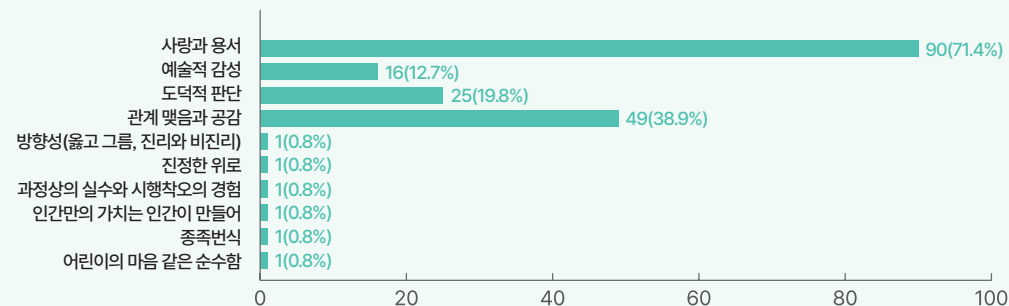
- 편리해지고 효율적이 되었다
- 인간적인 대화나 관계가 줄었다
- 두 가지 모두 느낀다
- 잘 모르겠다



Q3 AI 시대에 가장 잃기 쉬운 '인간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Q4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설문을 진행하며

AI가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며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온 지금,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된다. “기술 속에서도 인간다움은 무엇으로 남을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 역시 이 변화 안에 있다. 학생들과 성도들이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걱정하는지 듣고 싶었다. 그 작은 목소리들을 모아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설문을 진행했다. 126명의 응답은, 기술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 될 것이다.

Q5 AI 시대에 가장 잃기 쉬운 '인간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26명의 주관식 설문 응답에서 발췌

① 사랑과 배려

“AI 시대일수록 사람을 사랑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공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사랑·배려·공감)

② 관계와 공동체

“AI가 편리해도, 함께함의 가치를 잃지 않고 사람과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관계·공동체·소통)

③ 윤리와 도덕

“AI는 우리의 행동을 학습하는 만큼, 인간부터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윤리·도덕·정직)

④ 자기정체성

“정답을 찾기보다는 나다움으로 살고, 삶의 주체는 나라는 생각을 잃지 않는다.” (자기주도·정체성·중심)

⑤ AI 활용 균형

“AI는 참고만 하되, 의지하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 (AI 활용·균형·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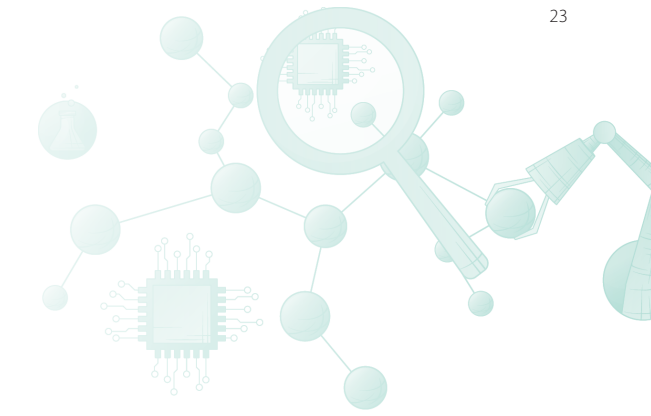
3 설문을 통해 본 AI 시대의 인간다움

AI 시대, 인간다움은 더 또렷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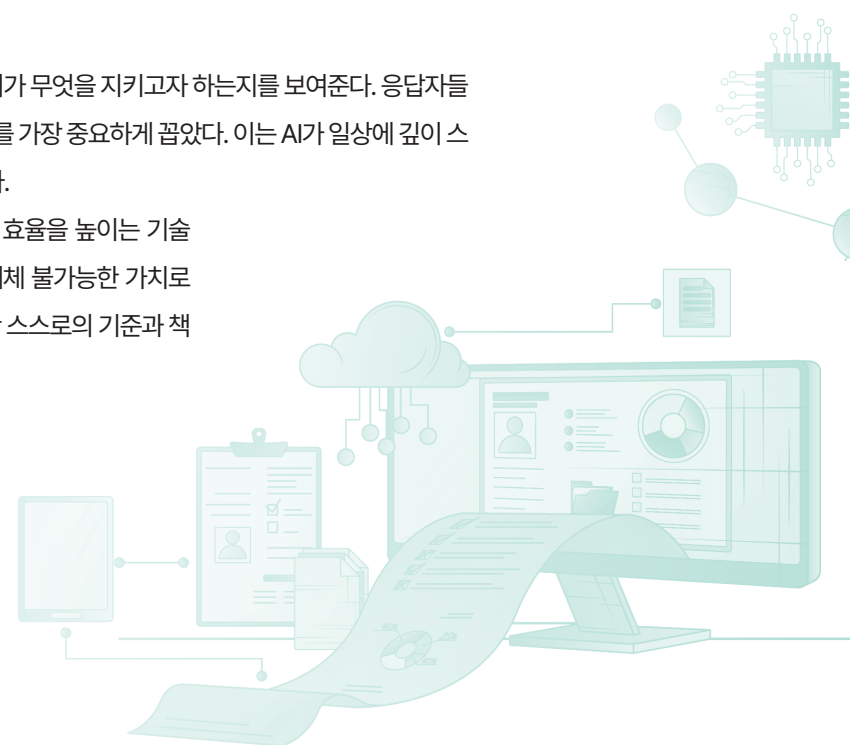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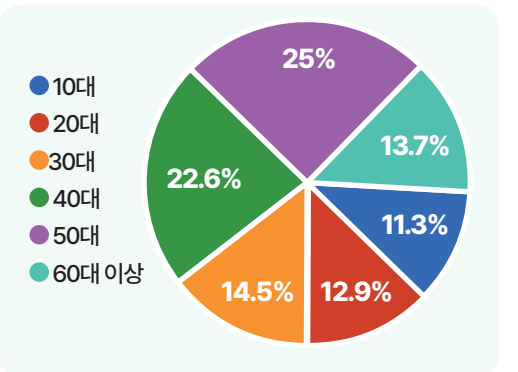
126명의 응답은 AI 기술에 대한 평가보다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지를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기술의 편리함보다 사랑과 배려, 공감 같은 인간 고유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이는 AI가 일상에 깊이 스며들수록, 사람다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많은 이들은 관계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 환경 속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경험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응답 역시, 기술 이전에 인간 스스로의 기준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드러낸다.

응답자들은 AI를 유용한 도구로 받아들이면서도, 삶의 주체는 인간 자신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설문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가 새로운 기술을 따라 잡는 데 있지 않고, 오래된 가치들을 어떻게 지켜내며 살아갈 것인가에 있음을 보여준다.



Q6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글 | 이송학 목사

2024년 5월, 2교구 야유회(무의도)

안녕하세요. 이송학 목사입니다.

2023년 11월에 거룩한빛광성교회 부임 인사를 드렸는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과 격려로 품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의 따스한 시선과 밝은 미소는 제 사역의 큰 힘이자 기쁨입니다.

목회의 길 은혜의 길

저는 대학 시절 기독교교육과에 진학하며 목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2006년 12월,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한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6년의 교육전도사 사역과 13년의 전임 목회 사역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제가 세 번째로 섬기게 된 교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매 순간 좋은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더불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목회자로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며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에 들어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경험들은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의 여정이 항상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듯한 무력감이 제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



2025년 7월, 일대일양육자반 51기 수료생들과



2025년 10월, 알파 53기 수료생들과

2025년 5월, 2교구 나들이(서울식물원)



관계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저를 찾아와 도움을 구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 목회자로서 깊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의 어려움 앞에서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무력감’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무력함에서 신뢰로

그러던 중 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주어졌고, 저는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제적인 도움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저는 송실대학교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며, 저를 향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 상담’이라는 공부의 시작은 누군가를 돕기 위함이었지만, 그로 인해 시작한 공부가 사실은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며 저는 제 연약한 내면을 마주하게 되었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웃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마친 후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상담하며, ‘기윤실 청년상담센터 WITH’에서 5년간 운영위원으로 섬길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 자신이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의 삶을 돕기 위해 시작했던 기독교 상담 공부, 결국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의 삶을 진실하게 만지시는 분이심을 더욱 깊이 고백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할게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제 모습이 무력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기도를 통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자로 함께하며 감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서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저도 늘 도전을 받고, 그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교구 안에서 목회자를 귀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을 깊이 누립니다.

지난 19년간의 목회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자라게 하시고 다듬어 주시며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걸음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목회자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유아부, 작은 예수님을 키우다

글 | 최은우 학생기자



유아부 식구들이 모두 함께.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밝은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유아부입니다

신년은 모든 시작의 상징입니다. 지난 한 해를 거치며 우리는 많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에 관심과 사랑을 기울였는지는 돌아볼 일입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는 곧 만개할 꽃 같은 아이들을 보살피며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동체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이번 『겨자씨』에서는 새 생명과 광명의 의미를 담아 유아부의 양요한 전도사님을 인터뷰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누가복음 18:15~16)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신전이 될 어린 아이들과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자 분들이 이번 기사를 통해 많은 관심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유아부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유아부는 나이와 관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육하며,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 저와 선생님들, 아이들이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유아부 예배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라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 준비를 하나요?

유아부에는 공과 선생님, 찬양 선생님, 말씀 천사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공과 선생님: 아이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찬양 선생님: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즐거운 찬양을 매주 준비합니다.

말씀 천사 선생님: 성경 암송을 담당하며, 미리 암송 영상 등을 만들어 아이들이 성경에 친숙해지도록 돕습니다.

담임 선생님: 아이들과 가까이 교제하며 예배 내용을 자세히 가르칩니다.

유아부를 하며 느끼는 특별한 보람과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오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부모님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에도 유아부만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하루 의젓해지는 모습을 볼 때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어려움은 주로 의사소통에서 생깁니다. 일부 아이들은 어휘가 다양



열심히 기도드리는 아이들. 아이들은 유아부에서 자라며 예배의 기본을 다져갑니다

하고, 또 간단한 단어만 쓰는 아이들도 있어 선생님들과 논의하며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기 위해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로 자라려면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예배 시간은 제한적이므로 부모님의 역할이 더 큼니다. 교회는 부모님이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반복적인 훈련과 양육을 이어가야 합니다.

유아부의 비전은 단 하나, 작은 예수님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라가실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사랑스럽게 성장하여,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라면,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유아부 아이들은 암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보냅니다

다섯 사람이 말하는 2026년의 바람

새해를 맞이하며, 서로 다른 세대의 다섯 분에게 같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 새해에 이루고 싶은 마음,

그리고 2026년을 단어로 표현한 고백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밝아지길 바랍니다.

질문

1

2026년 소망

2

꼭 지키고 싶은 나만의 습관과 다짐

3

2025년 가장 감사한 일

4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

5

2026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설산 학생(1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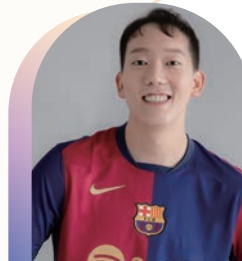
- Q1 대학 입시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 Q2 하루 4시간 공부하기
- Q3 흔들리지 않고,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빠지지도 않은 것
- Q4 건강한 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 Q5 절정

박의창 청년(20대)



- Q1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 Q2 매일 큐티하며 말씀을 가까이하고 싶습니다
- Q3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Q4 2026년에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 Q5 새 출발

강철민 성도(30대)



- Q1 시작하는 일을 담대함과 즐거움으로 해내고 싶습니다
- Q2 아내와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려 합니다
- Q3 나를 믿고 사랑해 주는 사람과 믿음의 가정을 세운 것
- Q4 공동체에 감사하며 주변을 사랑으로 대하고 싶습니다
- Q5 도전

장사라 집사(40대)



- Q1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것
- Q2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
- Q3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낸 것
- Q4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나누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 Q5 경청

김학철 집사(60대)



- Q1 온 가족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 Q2 캘리그라피 연습과 말씀 필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 Q3 건강을 허락하시고 손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Q4 직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 Q5 구원



«
아내와 함께
새가족교육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남겼어요.
서로 응원하며 배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나의 교회

글 | 이흥국 성도

나는 평생 서울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올해 초,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은 뒤 재활과 전원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파주시 책향기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처음 두 달은 다니던 교회로 계속 출석했지만, 왕복 100km에 달하는 거리는 점점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의 교회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예전부터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좋았기에,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지만 쉽게 마음이 가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그때 고양시에서 목회하시는 딸의 시아버지께 조언을 구했다. 그분은 “큰 교회에도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하시며 특정한 교회를 추천하지는 않으셨다. 기도하며 찾던 중, ‘일단 부딪쳐보자.’는 마음으로 거룩한빛광성교회 수요일예배에 참석했다. 예배가 좋았다. 성가대와 찬양대가 정성껏 예배를 섬기고, 성도들의 예배 자세 또한 진지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흥국 현경희 (12교구)
2025. 9. 14

«
드디어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며칠 후에는 금요기도회에도 참석해보았다. 그 예배는 말 그대로 전율이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감사가 넘쳤다. 위임목사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인도하시는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금요기도회는 나의 영혼의 갈증을 시원히 적셔주었다. ‘내가 찾던 교회다!’ 그 후 목사님께서 “그냥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하셨다. 마지막으로 딸의 시아버지께 다시 여쭙었다. “거룩한빛광성교회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웃으며 “그 교회라면 적극 추천합니다. 별 다섯 개 만점에 다섯 개를 드릴 수 있는 교회지요.”라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9월 14일에 정식으로 등록했다.

새가족부에서 4주, 양육부에서 4주 교육을 받으며 교회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내가 만난 거룩한빛광성교회는

- 상식이 통하는 교회
- 4대 절기 헌금을 모두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교회
- 낙후된 지역 교회에 교육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 금요기도회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 마귀를 징벌하실 때는 성난 사자 같지만, 어려움 당한 이들을 보면 눈물짓는 위임목사님이 계신 교회
- 겉으로는 큰 교회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작은 교회보다 더 따뜻하고 친밀한 교회

나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
4주 동안의 새가족교육을 마치고
모두와 함께 찍은 단체사진이에요.
함께 배우고 격려하며 즐거운 시간
을 보낸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번홍화 사프란, Saffron

글! 정정숙(세계기독교박물관 성서식물연구소 소장, www.segibak.or.kr)



번홍화는 초겨울에 꽃이 피는 것이 특징이다. 요정이 꽃신(神)에게 마지막 꽃을 피워 달라고 요구하여 피어났다는 전승이 있을 정도이다.

번홍화(番紅花)는 사프란(Saffron)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는 향품의 재료이다(아가 4:14). 영명(英名) Zafraan은 ‘노란색’이라는 아랍어에서 비롯되었는데, 붉은 암술대에서 황금색 염료를 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사프란은 가장 비싼 향신료로 1g을 얻기 위해서는 150개의 구근에서 나오는 500여 개의 꽃을 따 모아야 한다. 독특한 향과 약간의 신맛, 그리고 황금색의 화려함이 돋보이고 방부제, 정력제, 흥분제로도 이용된다. 울금(Turmeric)의 뿌리, 금잔화(Marigold), 잇꽃(Safflower, 홍화) 등의 대용품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프란의 향과 맛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수메르인들은 5천 년 전부터 번홍화를 향료나 염료로 사용했으며, 고대 이스라엘·그리스·로마의 왕실도 향신료와 염색 재료로 사용했다. 지금은 스페인·인도·이란에서 대량 생산하여 수요의 80%(약 300톤)를 공급하고 있다.

꽃은 알뿌리 하나에 2~3송이씩 피는데, 암술이 꽃잎보다 길게 나와 반짝이므로 이채롭고 향기가 독특하다. 암술을 따서 그늘에 말리면 염료나 약용, 음식 재료, 스튜, 아이스크림, 요거트, 차 등의 향신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 북쪽의 하술, 홀라, 골란고원, 예루살렘 주변에서 볼 수 있으며, 세계기독교박물관 성경식물원에서도 11월이 되면 볼 수 있다.



2025년 11월, 제천 세계기독교박물관 성경식물원에 핀 번홍화 모습



고급 향품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채취한 번홍화 암술 1g



꿈을 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다음세대

꿈꾸는 다음세대

학생

꿈을 담는 가정

가정

꿈을 지켜주는 담장

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꿈꾸는 다음세대

꿈꾸는 꼬마 (꿈꼬)

영아(0~3세)
유아(4~5세)
유치(6~7세)

꿈꾸는 어린이 (꿈린이)

초등학교
1~6학년

꿈꾸는 세대 (Dream Generation, 꿈젠)

꿈젠 중등부

14세~16세
중학생

꿈젠 고등부

17세~19세
고등학생

꿈.담 | 초등1부

특별한 이야기 ‘개인별 반별 심방’

글 |정은숙 기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히브리서 10:24>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일까?

생일잔치일까, 성경 골든벨일까?

그것보다 더 기대하는 시간이 있다. 바로 ‘반별 심방’ 시간이다.

초등 1부는 아이들이 많아 주일마다 모든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 주기 어려웠다. 그래서 한 반씩 돌아가며 심방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예배 2부 순서 중 약 15분 동안 교사실에서 반 아이들과 만나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

이 시간은 아이들의 삶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처음엔 조금 긴장하지만, 곧 마음을 열고 자신의 꿈과 이야기를 들려준다. 장래희망을 나눌 때면 아이들의 눈은 반짝인다. 과학자, 의사, 선생님, 드론 조종사, 그리고 유튜버까지 어떤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 기대가 된다. 좋아하는 음식, 요즘의 고민, 믿음의 이야기까지... 아이들의 작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읽을 수 있다.

함께 간식을 나누며 웃음도 피어나고, 마음도 가까워진다.

그리고 심방의 가장 귀한 순간, 축복 기도가 이어진다. 아이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사는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그 순간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이들의 눈빛에서 그 확신이 반짝인다.

사랑 안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마무리되는 반별 심방. 이 시간은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며, 초등 1부에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이다. 새해에도 이 사랑의 물결은 계속될 것이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의 예쁜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1. 다과와 함께
2. 에스더반 '반별 심방'
3. 질문 카드 뽑기

꿈.담 | 초등5부

통합예배, 아이들의 마음에 예배를 심다

글 |정은숙 기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18>

초등5부는 밝은 찬양과 따뜻한 기도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이다.

한 달에 한 번 전체 부서가 함께 모이는 ‘통합예배’를 진행하며, 아이들이 중등부로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9시 예배 시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예배 가운데 예찬반이 앞에서 싱어와 워십으로 섬기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도록 돕는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며 잘 따라 하지 못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손을 들어 고백하는 법을 배워 간다. 매 주일 설교 후에는 스스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이들이 자신의 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결심을 고백하는 모습은 분명한 믿음의 성장을 보여준다. 통합예배 후에는 무비데이, 교제의 시간, 반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예배 속에서 아이들은 웃고 이야기하며 예배가 삶의 일부가

되어 간다.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간, 세대가 함께 어울려 예배하는 감동이 초등5부를 더욱 밝게 비추고 있다. 초등5부의 통합예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신앙 훈련의 과정이다.

김대훈 전도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찬양하고,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 ‘예배자’로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5부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통합예배
2. 예찬반 찬양단
3. 무비데이 킹오브킹스

꿈.담 중등부

졸업 선배들이 들려주는 중등부 생활 꿀팁

글 I 태경환 학생기자



중등부 졸업 소감은?

... 태경환 기자

안녕하세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중등부를 떠나 고등부로 가셨는데, 졸업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지상(고1) 안녕하세요. 초등부 때와는 달리 큰 지저스아트홀에서 섬긴다는 것이 항상 신기했어요. 그런데 벌써 그곳을 떠나 고등부실에서 섬긴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중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 믿음이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유유림(고1) 중학교 3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겼는데, 중학교에서는 친구들과 기도하고 찬양하며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라 감사해요.

류재범(고1) 정들었던 중등부를 떠나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같은 여러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되었고, 믿음이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중등부에서의 추억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누군가는 중등부를 졸업하고, 또 누군가는 새롭게 중학생이 되었다.
3년 동안 중등부에서 생활하다 고등부로 올라간 선배들에게,
중등부 교회 생활 꿀팁을 들어보았다.



이지상



유유림



류재범

... 태경환 학생기자

중등부 신입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팁은?

이지상(고1) 선생님들이 다 너무 좋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먼저 인사를 건네 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중등부에서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선생님들은 인사하면 꼭 받아주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기도 하니까 용기 내서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 지파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해요. 찬양팀, 워십팀, 방송팀, 예배팀 이렇게 네 팀이 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집니다.

유유림(고1) 중등부 시절에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면서 천천히 꿈을 키워 갔으면 좋겠어요. 또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는 능력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나 걱정될 때는 꼭 기도하세요. 힘들 때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마음을 넓혀 가길 바랍니다.

류재범(고1) 예배 시간에는 늦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떠돌고 싶겠지만, 그 시간만 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들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 태경환 기자

신입생들을 위한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꿈.담 | 고등부

떠나는 발걸음, 이어지는 시작 방성빈 목사님 인터뷰

글 | 최아인 학생기자



고등부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방성빈 목사님. 그동안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과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다짐을 담담히 이야기하는 모습이다

고등부 수련회



새로운 시작 앞에서

어느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1년이 끝났다. 그리고 나는 10대의 끝자락에 닿아 있다. 또 한 번 ‘시작’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다. 시작은 늘 어색하고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 2025년을 마지막으로 고등부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시는 방성빈 목사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새해를 맞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최기자 안녕하세요. 『겨자씨』 기자 최아인입니다.

방성빈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등부를 담당했던 방성빈 목사입니다.

최기자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현)고1·고2·고3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방성빈 목사님 먼저 격변의 시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된 고3 여러분께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각자 힘든 여정이었겠지만 결국 여러분은 이겨냈습니다. 앞으로는 압도할 만큼 힘든 일보다는, 새롭고 다양한 경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책임을 지며 성취하는 과정은 지금보다 훨씬 즐겁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어른이 되어갑니다. 이 출발점에 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이제 고3 선배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고 있는 고1, 고2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고3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가장 많이 보이는 내용이 “후회 없이 마무리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텐데, 그날 후회가 남지 않도록 2026년을 알차게 보내길 바라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 사역을 마치며

최기자 이제 2025년을 끝으로 고등부를 떠나시는데, 마지막 인사와 새로운 자리에서의 다짐을 들려주세요.

방성빈 목사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보내고 떠납니다. 언제나 ‘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었기에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기뻐하고 울던 모습 하나하나가 제게는 참 소중했습니다. 제 흔적은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뜻하게 남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매년 맡은 일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 수련회장에서 빗자루를 보며 “하나님, 저를 저 빗자루처럼 사용하셔도 좋으니 어디든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도 때문인지 매년 사역이 바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셨습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최기자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등부를 위해 헌신해 주신 방성빈 목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에필로그 - ‘시작’이라는 낯설 앞에서

매 순간 마주하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낯설다. 문을 열고 나서야 보이는 길은 희미하고, 발걸음은 조심스럽다. 두려움이 스치지만, 그 속에서도 ‘걸을 수 있다.’는 작은 자신감이 피어난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간다는 건 익숙한 것을 뒤로하는 일하기에 쉽지 않다.

그러나 담담히 숨을 고르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 낯설은 조금씩 친근함으로 변한다. 실수와 실패가 기다릴지라도 그것 또한 새로운 시작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시작의 떨림은 결국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나는,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나를 마주할 준비를 시작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①

한경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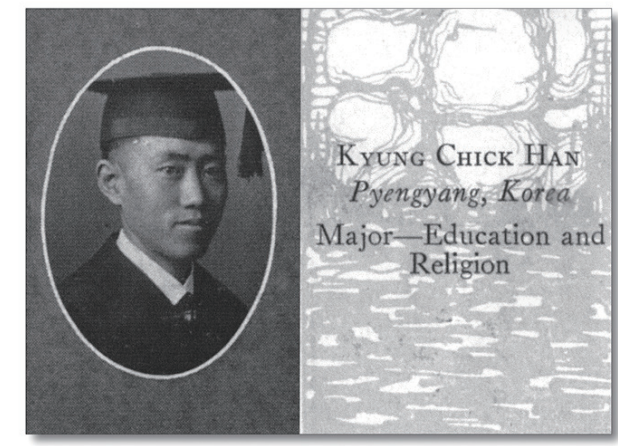


주님께서 동방의 이 작은 나라 이름을 불러주시고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가난한 땅을 이토록 사랑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그저 감사, 감사 할 따름입니다. 이제 그 경이로운 역사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묵묵히 십자가 길을 따랐던 선배들을 기억하려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경직 목사님 이름을 불러봅니다.

기획 | 김형수 기자

기억해야 할 이름 ‘한경직’

글 | 김일석 목사(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사 박사)



▲ 엠포리아 대학 졸업사진 1926년



» 벨아니교회(현재 영락교회)의 정초석에 교인명부를 넣고 있는 한경직 목사

한반도에 기독교가 전래된 지 어느덧 140년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2천 년 역사를 가진 서구교회에 비하면 결코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한강의 기적을 거치는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출현했습니다. 그 가운데 목회자로서 한국교회를 빛낸 신앙의 위인으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이가 바로 한경직 목사님(1902~2000)입니다. 평안도가 고향이었고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던 한경직 목사님은 해방 직후 월남하여 1945년에 영락교회를 개척했고 1973년에 은퇴

할 때까지 오로지 목회자로만 활동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자 동시에 세계적인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목회와 영적인 삶이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고 결국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템플턴상(Templeton Prize)을 1992년에 수상하기도 했으니깐요. 한 목사님이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고 별세한 해가 2000년이니까 벌써 25년 전 일입니다.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누구냐고 묻는 청년 세대를 위해 기억을 나누어야 할 때가 온 셈입니다.



1

1. 한국전쟁 중 위문차 전선을 방문(1953년 4월 7일)
2. 한국전쟁 직후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을 돌보는
다비다모자원을 을지로2가에 설립하다(1954년 1월 29일)



2

1. 전도

한경직 목사님이 태어나 유년기를 보내던 1900년대 초반의 평안도에는 진작에 미국 출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엔 키가 크고 눈이 파란 그들의 생김새에 신기해하다가 점차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2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저들이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멀고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까지 온 까닭은 무엇일까? 어린 한경직은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답을 얻습니다. 어린 시절 출석하던 자작교회 교회학교에서 늘 암송하던 말씀이 바로 그 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멀고 먼 한국까지 왔다니!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바라보며 어린 한경직은 전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첫째가는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훗날 대학생이 된 한경직은 방학마다 친구들과 전도대를 결성해서 만주 봉천에 다녀오는 등 순회전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도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역으로 전도를 꼽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최고의 목표니까요.

2. 교육

한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서구식 근대교육을 받은 첫 세대에 해당합니다. 1902년생인 그는 마을의 서당에 다닌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운 소학교에 다녔습니다. 소학교를 졸업하니 아버지가 더 공부하라며 평안북도 정주에 세워진 오산학교에 입학할 시켜주었습니다. 오산학교는 기독교 민족주의자로 이름을 날리던 남강 이승훈이 사재를 털어 세운 학교였습니다. 한경직이 입학했을 때 교장 선생님은 고당 조만식이었습니다. 이승훈과 조만식에게 큰 감화를 받은 한경직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을 기독교 민족주의자로 살아갑니다.

오산학교를 졸업하면서 한경직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불쌍한 민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하고는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유일한 대학교인 평양의 숭실대학에 입학합니다. 숭실대학을 다니며 민족과 교회라는 두 사랑의 대상을 더욱 품고자 기도하던 중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 옛날 공부를 많이 하셨던 한 목사님은 자신이 공부하여 민족을 섬긴 것처럼 후손들 역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의 목회에서 또 다른 한 축이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월남한 이후에 자신의 모교인 숭실대학교를 서울에 재건했고 여성교육이 절실하다고 여겨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물론 중등교육을 위해서 대광중고등학교와 영락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후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구름같이 허다한 인재들이 넘치게 된 것은 교육입국(敎育立國)을 실천했던 한경직과 같은 선각자들 덕분입니다.

3. 봉사

한경직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칠 때쯤 뜻하지 않게 폐결핵이 발병하여 치료를 위해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깊은 산 속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결핵을 앓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한경직 역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석에서 한경직은 “주님! 제가 민족을 살리고자 지금껏 공부했는데 그동안 공부한 시간만큼이라도 조국을 위해 봉사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석에 누워 한경직은 성경책은 물론 틈틈이 톨스토이의 책과 프란체스코 전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경직되어 무력하던 러시아정교회에 경종을 울리던 작가였고, 프란체스코 역시 타락해 가던 중세교회에 다시금 복음의 활기를 되찾게 해준 수도사였습니다. 두 인물은 하나같이 길을 잃은 교회에 활로를 열어준 개혁자요 예언자와도 같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영



4

3. 아이들을 사랑한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 유치부와 함께(1953년)
4. 보린원생들과 후원자들(1948년)
5. 오늘날의 대광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정초식을 갖다(1961년 5월 30일)



3



5

향을 받아 한경직 목사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림으로만 기쁜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활발히 전개하는 역동적인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병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심을 한경직은 새삼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경직 목사님은 ‘전도, 교육, 봉사’ 이 세 가지를 축으로 삼아 목회를 구상했고 일평생 영락교회를 통해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 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한국교회는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를 통해 목회의 방향성을 되찾게 됩니다. 지금껏 살펴본 대로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책상물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배태된 것이었습니다. 교회와 세상, 예배의 현장과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정성진 목사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제8대 총장 취임

글 | 이해남 전도사

새 사명을 맡다

지난 2025년 8월 25일, 이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채플에서 정성진 목사님이 제8대 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제38회 학위수여식과 입학예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정 목사님께서는 늘 강조해 오신 “아사교회생(我死敎會生) -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를 상기하시며, 이제는 학교를 향해 “아사학교생(我死學校生) - 내가 죽으면 학교가 산다.”는 각오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총장 임기는 2029년 7월 31일까지(4년)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총장 사역

정 목사님은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권면이 자주 등장함을 언급하시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총장 사역을 시작하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한국의 신학대학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솔직히 짚으시면서도, 이순신 장군의 “아직 12척이 있다.”는 각오로 남은 힘을 모아 학교와 교회를 함께 살리는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된 ‘실천’의 여정

정 목사님께서 ‘실천’을 강조하시는 행보는 은퇴 이후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2019년 조기 은퇴 이후, 교회 울타리 안팎의 실제적 필요를 세심히 살피셨습니다. 자립준비 청년과 탈북 청년을 만나 반찬 배달, 상담, 긴급 재정 지원, 취업 연계까지 이어가셨습니다. 농어촌 교회에는 냉난방 등 생활 인프라 지원을 진행하셨고, 동시에 목회자 직업훈련과 AI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힘쓰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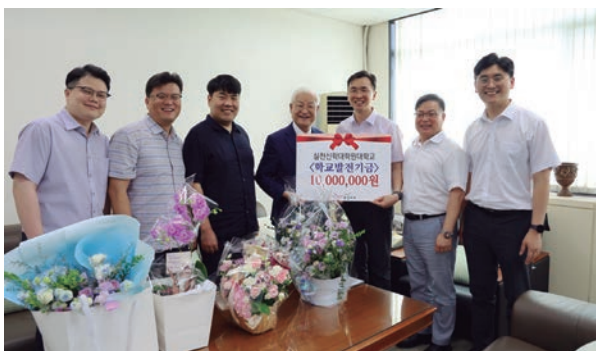
현재는 크로스로드 대표이사,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한일연합선교회 이사장 등으로서 현장-학문-네트워크를 아우르며 섬기고 계십니다.



⌕ 총장 취임식



⌕ 학위 수여식



⌕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사진은 전달식에 참석한 정성진 총장과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역자들의 기념촬영 모습이다



⌕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목회자들과의 단체사진

“실천신학은 신학의 왕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 목사님께서 실천신학을 “신학의 왕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신학이 예배당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 목회와 환경을 잇는 융합적이고 실제적인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신앙은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말미에는 앞으로의 방향도 제시하셨습니다. 학교의 체질을 현장 중심·사역 연계형으로 단단히 세우고, 선교적 디아코니아를 학교의 숨결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력 있는 교수님들, 신실한 교직원, 곳곳에서 기도하는 동문, 조건 없이 헌신해 오신 후원자”를 언급하시며, 이미 함께 걷고 있는 동역자들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행합니다

성도님들께도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가 말씀의 진리와 삶의 실천을 균형 있게 붙들도록, 총장과 교수·직원·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결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어촌·다문화·청년·북한이탈주민 등 현장 사역 프로젝트에 각자의 자리에서 동참하시고, 주변의 필요와 자원을 학교와 이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과 연구, 시설 개선이 꾸준히 이어질 때 학교가 더 멀리, 더 깊이 섬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취임은 우리 시대에 ‘실천신학’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일하고, 학교가 교회와 사회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는 일 - 정성진 총장님의 “아사학교생” 고백이 그 길의 첫 단추가 되리라 믿습니다.

정성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성드림학교 '제3세계 인재양성사역'

복음의 빛진 자로서, 교육의 지경을 세계로 넓히다

글 | 이수연 집사

작은 올림에서 시작된 큰 비전

2023년 2월, 교장 선생님의 한 통의 전화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한 학생이 한국에서 신앙과 교육을 통해 자라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작은 올림이 교회와 학교의 뜻을 모으게 했고, ‘제3세계 인재양성사역’이라는 아름다운 비전으로 자라났습니다.



※ 2023년 10월 22일,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제3세계 인재양성을 위한 첫 번째 후원 행사가 열렸다

교육의 지경을 세계로

거룩한빛광성교회와 광성드림학교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라는 사명을 따라, 복음에 빛진 자로서 교육의 지경을 세계로 넓히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나라의 학생을 선발해 중·고·대학 전 과정을 포함한 10년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과 전문성을 나누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여정입니다.



※ 2023년 11월 10일, 홈스테이를 신청한 12가족을 초청하는 특별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 2023년 9월 25일, 스리랑카에서 현지 면접을 진행하며 스네하 자택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첫 번째 결실, 스네하 이야기

2023년, 스리랑카 현지를 방문해 면접을 진행한 끝에 첫 번째 학생 스네하(Sneha) 양이 선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학부모님이 10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후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마음에 감동한 여러 교인들의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약속 안에서 2024년 2월, 스네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현재 광성드림학교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스네하는 교회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학생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주최 전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동상)을 수상하는 등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교회의 청소년 알파와 제자훈련에 참여하며 복음의 기쁨을 스스로 배우고 있습니다.



※ 2025년 11월 8일, 교육부 주최 전국 이중언어말하기대회 교육부장관상(동상) 수상

함께 이어가는 사랑의 여정

제3세계 인재양성사역은 3년 주기로 제3세계 학생 1명, 탈북민 자녀 1명을 후원하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60여 교인과 학부모가정이 기도과 물질, 홈스테이로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140여 년 전,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한국의 교회와 학교가 세워졌듯,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갚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끄는 거룩한 낭비.”

우리의 헌신이 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다시 세상을 살립니다.

광성드림학교 제3세계 인재양성사역 1호 학생

스네하를 인터뷰하다

글 | 전하빈 학생기자

낮선 환경 속 적응과 성장의 기록

광성드림학교 제3세계 인재양성사역 1호 학생 스네하는 2024년 2월에 입국해 현재 중등과정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새해가 밝은 만큼 이제는 사실상 3학년이 된 셈이다.

친구들과의 관계와 학교 활동 속에서 성장과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스네하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과 앞으로의 목표,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어를 배우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자신감을 키워가는 스네하의 이야기는 타인의 귀감이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스네하가 낮선 환경 속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는 스네하



스네하의 노력과 도전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따뜻하게 격려하시는 이은지 담임 선생님

Q. 한국 생활 2년 동안 기억에 남는 장소나 음식이 있나요?

A. “특별히 떡볶이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맛있고, 친구들과 먹었던 기억이 좋아요. 장소는 한강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어서 기억에 남아요.”

스네하는 한국에 온 지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즐기며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고 했다. 음식과 장소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Q. 학교생활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A. “처음에는 한국어를 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하려고 했지만 친구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소통이 어려웠죠. 그래도 친구들이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서 저와 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그때 친구들의 친절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고,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스네하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경험을 통해 한국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학교생활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A.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또 중3이 되면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고 싶어요.”

스네하는 학업적 목표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리더십 면에서 성장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냈다. 한국 생활을 통해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엿보였다.

중학교 2년 동안 스네하의 담임을 맡아온 이은지 선생님과도 짧게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스네하와 함께한 순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요?

A. “며칠 전 스네하가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 참가했어요. 한국어와 모국어인 싱할라어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대회였는데, 경기도 대표로 선발되어 훌륭하게 발표했어요.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구요. 연습 과정에서 보여준 도전 정신과 노력,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담임 선생님은 스네하의 노력과 성취를 강조하며, 단순한 성적이 아닌 도전과 성장의 과정에서 드러난 스네하의 성품을 높이 평가했다.

Q. 중3이 되는 스네하에게 기대하거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A. “스네하는 마음이 넉넉하고 주변을 잘 돌보는 친구예요. 중3이 되면 후배들을 잘 챙기고, 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멋진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 기대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교 부회장 활동도 스네하를 성장시키는 좋은 경험이 되었을 거예요. 앞으로 학교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스네하는 한국 생활에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언어와 학교생활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앞으로도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스네하는 한국 생활 속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담임 선생님 또한 스네하의 배려심과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중3으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학교를 아우르는 멋진 역할을 해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서 펼쳐나갈 스네하의 도전과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



스네하와 담임 선생님 인터뷰. 한국 생활과 학교 적응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스네하가 겪는 도전과 성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

크리스천이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APEC 2025, 성과와 ‘피지컬 AI’의 미래

글 | 박길환 기자(대구대 공공인재대학 교수, 경제발전 전공)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경주선언’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제33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21개 참여국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주선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언에는 미래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경제·산업 전략,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 대응, 국제 공급망 재편과 규제 완화, 개방·공정·포용을 기반으로 한 다자 협력 강화,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 대응 및 지속가능성 강화, 그리고 CCI(문화창조산업)·금융·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교류 활성화 등이 담겼다. 이는 태평양 지역의 미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APEC의 위상과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

현재 APEC 21개 회원국은 세계 인구의 약 37%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GDP의 60% 이상, ‘교역 비중 약 50%’를 차지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어, APEC은 명실상부한 21세기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

APEC 국가 수는 전 세계 국가의 약 1/10에 불과하지만, 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이들의 영향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 간 이해관계 변화로 인해 무역 및 공급망 구조가 재편되는 현시점에서, 기존 갈등의 중심에 있던 미·중 두 정상인 서로 이해 차이를 줄이고 공동 번영을 위한 의지를 보인 점은 국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긍정적 신호다.

AI 이니셔티브 2026~2030: 한국이 주도한 성과

이번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한국이 제안한 ‘AI 이니셔티브 2026~2030(5개년 인공지능 계획)’이 공식 의제로 채택된 점이다. 미래산업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제3의 물결’이라고도 불리는 정보화 혁명의 핵심인 AI는, 아직 본격적인 ‘피지컬 AI(Physical AI: 로봇, 스마트기기, 자율주행, 사회 인프라 등 AI의 실체적 적용)’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제조업 혁명 이후의 변화보다 더 큰 산업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70년의 역사: AI는 갑자기 등장한 기술이 아니다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AI 연구는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마빈 민스키, 클로드 섀넌, 존 매카시, 너새니얼 로체스터, 허버트 사이먼 등 과학자들이 모여 ‘생각하는 기계’를 정의하고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라는 용어를 공식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허버트 사이먼은 인지심리학, 정치학, 조직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자신이 제안한 ‘제한된 합리성’ 이론으로 사회과학의 지평을 넓혀 197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즉, AI는 단순한 자동화 기술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사회·경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학제적 연구 분야이다.

한국의 디지털 기반은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AI가 최근에서야 일상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AI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1998년 6월 18일,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국가 위기가 심했던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을 초청하여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손 회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브로드밴드 인터넷”이라고 강조했고, 빌 게이츠 회장도 이에 강하게 공감했다.

이 조언을 계기로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확충되며 학교 및 관공서를 중심으로 전자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었다.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산업을 장려한 민관의 전략적 투자는 인터넷망 인프라 과잉 우려를 불식시켰고, 네이버·다음·카카오 등의 국내 IT 플랫폼 기업 성장으로 이어졌다. IT 플랫폼 기업들은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시장을 확대했고,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금융지원을 상환(2000년 12월 4일)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피지컬 AI로 확장되는 한국의 경쟁력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초청으로 방한했던 손정의 회장은 이번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를 강조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는 어려웠으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퓨리오사·리벨리온 등 반도체 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기술력을 쌓아 왔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국내 로봇틱스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구조는 피지컬 AI 실증에 최적화되어 있어 AI와 결합한 산업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미국, 중국과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존재하고,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과 관세 전쟁 등 국제 정세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한국은 APEC 2025를 계기로 세계 3대 AI 강국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자산운용사 블랙록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과 엔비디아로부터 확보한 26만 장의 GPU는 민관 전반의 AI 실증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이 AI를 기반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선도국이 되고, K-컬처를 통해 문화를 확장하며, 국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본다.



세대를 잇는 공감 토크, 티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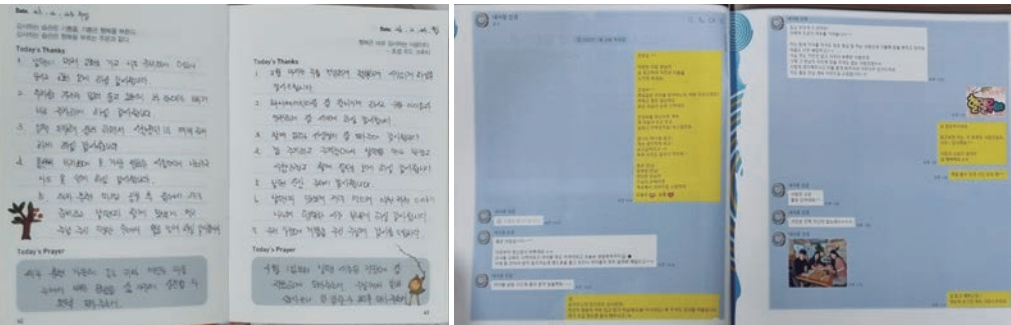
김일녀 권사님 & 허인경 집사님



글 | 우주희 기자



« 지금은 티타임!
아들 신득수 협동장로,
어머니 김일녀 권사,
며느리 허인경 집사



(좌) 365일 감사노트를 쓰고 있는
허인경 집사
(우) 만나며 나누는 카톡을 모아 아들
과 며느리가 만든 책자 '나의
사랑 아가씨'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아주는 것도 가족이지만, 서로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가족일 수 있습니다. 해묵은 고부 갈등 못지않게 장서 갈등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란 듯이 예쁘게 살아가는 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겨자씨』 성경 컬러링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의 제보로 이번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구순이 넘으신 한 권사님의 컬러링 작품을 그 며느님이 응모하셨는데, 단 몇 번의 연락을 통해서도 시어머니를 얼마나 살뜰히 챙기시는지 고스란히 느껴졌다고 합니다. 며느리 허인경 집사님과 시어머니 김일녀 권사님께서 오랜 시간 함께하시면서 쌓아왔을 이야기를 듣고자 11월 초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아들 되시는 신득수 협동장로님께서도 자리를 함께해 주셨는데,

긴 세월을 함께한 줄 알았던 허 집사님과 김 권사님이 뜻밖에도 작년에야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 장로님과 허 집사님은 각각 사별로 배우자를 잃고 홀로 지내시던 중, 작년 3월 가족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늦게 만났지만 절절한 사랑은 젊은이들 못지않았습니다. 두 분은 만나며 나누었던 사랑 가득한 카톡을 모아 두 분만의 책을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만나고부터 시작한 감사의 기록을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계십니다. 가정을 이룬 것은 사명으로도 연결되었습니다. 작년에 북한 선교학교 1회 과정을 수료하시고 해외 아웃리치를 떠나 탈북민들의 탈북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두 분은 매달 탈북민 교회를 방문하여 기도하며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십니다.

» 구순잔치, 온 가족이 함께한 날



서로를 꽃피우는 가족

한동안 외롭게 지내는 신득수 장로님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셨을 김일녀 권사님. 두 분이 연합하여 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쁘셨을 텐데, 두 분이 권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권사님의 노년의 삶도 활짝 피었습니다.

작년에 권사님의 구순 잔치가 있었는데, 육 남매의 가정이 모두 모여 구순 어머니 앞에서 재롱잔치를 벌였습니다. 신 장로님은 사회를 보셨고 허 집사님은 반주를 하는 등 두 분이 주축이 되어 구순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시는 집사님은 아이를 좋아하시는 권사님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도 나누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챙겨드리며 살갑게 지냅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반대 방향에 사시는 권사님 댁을 방문하여 교회로 모시고 옵니다. 권사님께서 예쁘게 색칠한 성경 컬러링을 찍어 『겨자씨』에 응모하는 일도, 상품으로 나온 쿠폰을 권사님 필요에 맞도록 사용해 드리는 일도 모두 집사님 담당입니다. 허 집사님은 믿음은 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권사님을 자랑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원래 제사도 지내셨지만, 자녀분들을 따라 교회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2005년부터 거룩한빛강성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얼마 후 직분을 받게 되었고, 또 남편 영감님이 돌아가시고는 마음을 잡으시려고 '갈렐 빌립창단'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아흔이 넘은 현재까지도 주 6일 교회에 나오실 정도로 열심을 내십니다. 권사님은 한 몸 챙기기도 벅찬 고령임에도 예쁜 꽃밭을 가꾸십니다. 집사님은 TV 뒤쪽에 먼지 하나 없는 권사님의 깔끔함과 부지런함을 떠올리면 본인도 설거지를 쌓아둘 수 없다며 웃으십니다. 권사님의 며느리 자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화 걸어오면 녹을 듯 상냥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아들이 단단한 사람을 만났다면 처벌이 있다 하시고, 두 분의 결혼으로 이런저런 걱정을 다 덜었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집사님께 권사님은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다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이 너무 예뻐서 허 집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꾸시는 꽃처럼 마음이 아름다우신 권사님은 두 분과 함께한 티타임 내내 그렇게 환한 꽃처럼 행복하게 웃으셨습니다.

복 내려온다

≡ '복 내려온다' 공연 모습

글 | 이정민(우리소리찬양대 지휘자, 하늘소리풍물찬양단 리더)

2025년 10월 19일(일) 오후 6:00 제2찬양위원회 찬양축제.
리조이스기타선교단과 하늘소리풍물찬양단이 콜라보 뜻을 달고 협력의 배를 띄웠다.



≡ 객승현 위임목사와 함께 한 컷. 하늘소리풍물찬양단과 리조이스기타선교단



밤늦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영상을 모니터링했다. ㅋㅋ 보는 내내 배꼽 잡고 웃었다. ㅋㅋ 우왕좌왕, 갈팡질팡, 수습할 수 없이 난장판이 된 듯한 모습에 의외로 성도님(관객)들은 환호해 주셨고 “앵콜! 앵콜!” 외쳐 주셨다.

아, 그럼 나는 실수로 실패이니, 잘못된 연출이라 자책했으나 하나님은 또 다른 연출을 하고 계셨던 걸까? 총감독은 역시 하나님이셨구나!

그래, 우리가 망가져 다른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드렸다면 이게 성공 아닌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실수를 너~무 너무 많이 해서 우리 단원들한테 너~무 너무 미안한데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그래서 내가 객승현 목사 마음을 자극해 호주머니에서 금일봉을 꺼내게 만들었느니라. 이제 그만 미안해 해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나게 삼겹살 파티하고 내년에 또 한번 망가져 보겠습니다.

복 내려온다

노래하다 가사 까먹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어떤 이에게 복 내려온다.

음악을 타고 에너지 폭발 춤을 추어 대는 쉽 없는 그 몸놀림 위에 복 내려온다.

6줄 기타 위를 피크와 함께 락(rock, 로큰롤)으로 질주하는 그 손가락 위에 복 내려온다.

좌르르르 펄치다 떨어뜨린 판소리 부채를 줍느라 당황하는 그 마음 위에 복 내려온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다리 스텝 꼬이는 미투리 속 그 발길 위에 복 내려온다.

허공을 맴도는 소고, 힘차게 낚아채는 여리고 가냘픈 그 손길 위에 복 내려온다.

이럼에도 감사, 저럼에도 감사, 박수와 앵콜로 환호하는 성도님들에게 복 내려온다.

믿음, 소망, 사랑을 꿈꾸며 실천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모든 이의 삶 속에 복 내려온다.

복 내려온다.~~~~

‘고맙습니다’ 릴레이

1. 이상민 집사님은 박노선 집사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박노선 집사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60대 집사님들은 직장에서는 시니어로 퇴직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시니어 부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뒤로 물러서기도 애매하고, 40대~50대가 대부분인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선뜻 나서기에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스스로 부담이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박노선 집사님은 2025년 사랑의 바자회에서 양말 장사를 하던 안수집사연합회에 일손이 부족함을 보시고 판매 일정을 자원하셨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못하시고(점심도 못 드시고) 종일 봉사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평소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봉사의 자리에서, 주차 봉사 자리에서, 교제의 자리에서 뵈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권위 의식을 가지지 않고 겸손히 나이 어린 사람들을 대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날도 부끄러움 없이, 육체적인 피곤도 잊으시고 양말 파는 일을 맡으신 사역으로 여기시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소녀 같은 권사님들을 많이 보았지만, 소년 같은 선배 60대 집사님들을 뵈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박노선 집사님의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함과 밝고 성실하신 모습으로 헌신 하심에 감명을 받았고, 본이 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3-4)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의 본을 보여 주신 집사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강건 하시길 기도합니다.

2. 박노선 집사님은 박대진 집사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제가 광성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남선교연합회에서 함께 봉사할 때, 집사님은 새가족들이 잘 적응하는지 안부를 일일이 묻고 확인하며 섬기셨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남선교연합회에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모든 사역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독



⌘ 이상민 집사님과 박노선 집사님



⌘ 박노선 집사님과 박대진 집사님

려하며 이끌어 주던 모습들. 안수집사회 부회장으로서 안수집사님들의 장례 조화도 일일이 보내 주시며 위로와 격려, 기도를 해 주셨던 기억들.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과 사역의 자리에 항상 머무르며 섬기는 집사님의 모습이 귀감이 되기에 칭찬합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보듬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돌보며 교회를 섬기고 주변을 살피는 것에서 진정한 자상함이 묻어납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는 세심한 배려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미소는 주변을 밝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섬기는 박대진 집사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 박대진 집사님은 정효경 권사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는 약 10년 전, 라이프호프팀 1기 멤버로 활동하면서 정효경 권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함께 봉사의 길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현재 저는 좋은학교만들기팀 팀장을 맡고 있고, 정효경 권사님은 팀의 총무로서 세심하고 성실하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초등부 교사 8년 차, 섬김사관학교 4년 차, 크로스로드 2년 차, 좋은학교만들기팀 1년 등 여러 사역에서 꾸준히 헌신하며 교회와 공동체에 따뜻한 영향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러나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섬기시는 정효경 권사님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소개합니다. 권사님의 삶은 섬김이 곧 사랑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이 되고 있습니다.

4. 정효경 권사님은?

‘고맙습니다 릴레이’는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박대진 집사님과 정효경 권사님

안전하고 편안한 예배 환경, 우리가 책임진다

시설관리위원회

기획 | 이종수 청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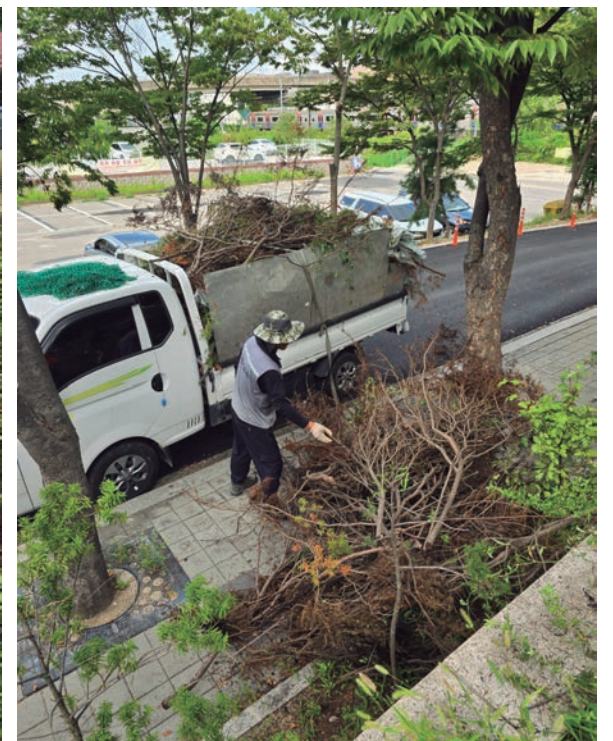
사진 | 시설관리위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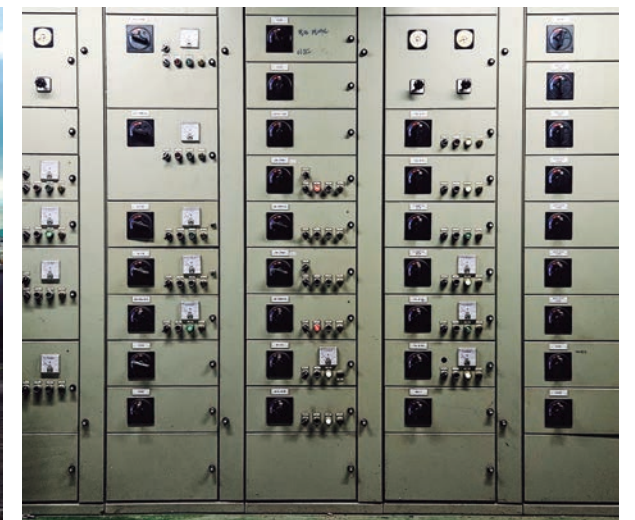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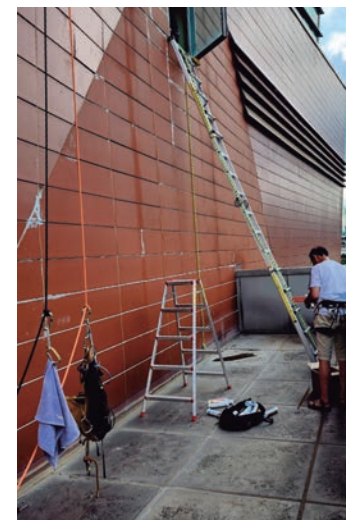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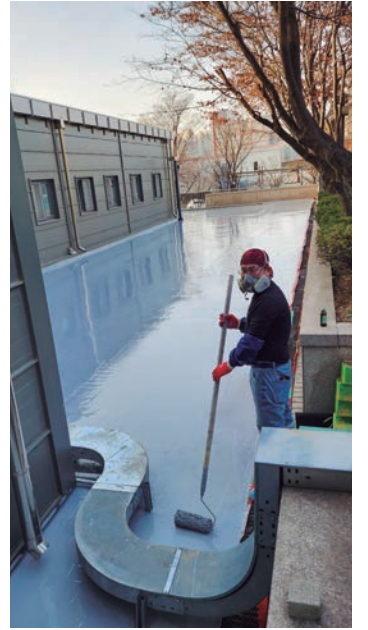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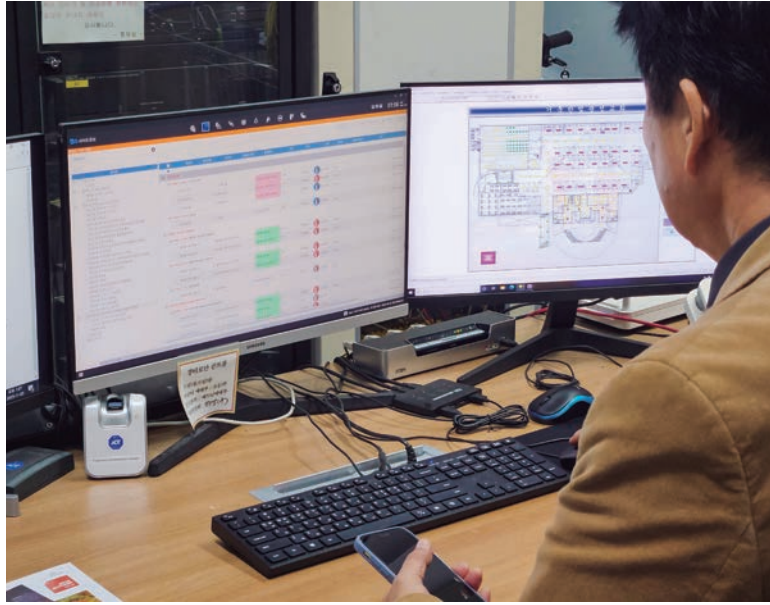
글 | 이경한 집사(2025 시설관리위원회 위원장)



시설관리위원회의 역할

시설관리위원회와 봉사자들은 교회 건물과 모든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건물과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 부분을 보수하며, 전기·소방·냉난방 설비를 관리합니다. 필요할 때는 공사 기획과 실행까지 맡고, 조경과 주차장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 교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전문적 헌신

봉사자들은 단순 청소와 제초작업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을 활용해 직접 보수 공사와 외부업체 공사에도 참여합니다. 성가대 천정 누수 보수와 교역자 사무실 방수 공사에도 참여해 수천만 원을 절약했고, 폐기물 처리도 직접 수행해 연간 수십만 원 이상을 절감했습니다.

비용 절감과 환경 개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교회는 연간 약 7,000만~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에너지 절약과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 환경 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위원회와 봉사자들의 헌신이 교회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광

예인, 조이풀, 알파 찬양팀 드러머

글 | 김형수 기자

1. 드럼은 어떤 악기인가요?

드럼은 타악기 중 하나로, 리듬을 만들어 내는 악기입니다. 여러 개의 북과 심벌을 하나의 세트로 묶은 형태로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으로는 드럼 스틱을, 발로는 페달을 사용해 소리를 냅니다.

2. 드럼의 매력은?

단순한 비트부터 복잡한 리듬까지 연주자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밴드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모든 악기가 드럼의 비트를 기준으로 연주되기에 전체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소리가 다양합니다. 킁, 스네어, 탐, 심벌 등 여러 타악기를 조합해 수백 가지 리듬과 느낌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드러머가 되었나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드럼이 있었는데, 칠 사람이 없어 얼떨결에 제가 치게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왼쪽 다리가 너무 떨려 자동으로 메트로놈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4. 왜 드럼은 밀폐된 공간에서 연주하나요?

소리를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밀폐된 공간의 방음 처리를 통해 외부로 소리가 새지 않고, 마이크 소리와 실제 소리의 시간차가 생기는 걸 방지해 줍니다. 또한 내부에서는 반사음이 조절되어 정확한 리듬과 음색을 모니터링하기 좋습니다.

녹음 및 밸런스 조정을 위해서입니다. 드럼은 마이크로 개별 파트를 녹음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 잡음이 들어오면 녹음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밀폐·방음된 드럼 부스에서 연주합니다.

5.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3부 예배 찬양 시간에 헤드셋을 끼고 연주하다가 헤드셋이 벗겨져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커버해 주었던 예인 찬양단 멤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알파 수양회 직전 허리 협착증으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술해야 했으나 침과 약으로 버티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0회 정도 연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과 여러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드럼 연주를 합니다. 조이풀 초창기 예배 때 드럼이 없어서 잼베를 빌려 연주하다가 손이 통통 붓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참으로 은혜로움이 가득했습니다.

6. 앞으로의 비전은?

매주 예배 때 드럼 앞에 앉을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드럼을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드러머가 되길 소망합니다.



⌘ 거룩한빛광성교회 드럼



⌘ 알파 찬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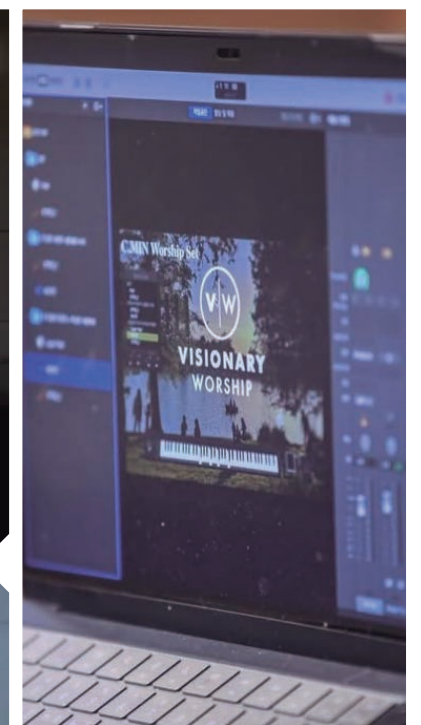


⌘ 예인찬양단



⌘ 조이풀 찬양팀

청년광장



YouTube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holylightkwangsungksn

2026년 청년회장 인사드립니다 즐겁게 섬길 수 있는 공동체

글 | 이형협(2026년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회장)

‘빛나는 청년들’과 함께 걸어온 길, 그리고 새 회장의 다짐

안녕하세요. 2026년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게 된 이형협입니다.

먼저 인터뷰의 자리와 기회를 주신 『겨자씨』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도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고 설렙니다. 약 10년 전, 군 제대 이후 IVF라는 캠퍼스 신앙 공동체를 통해 지금의 교회를 소개받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를 만나 많은 것을 누려왔고, 그동안 받아왔던 사랑을 전하고 싶어 섬김의 자리로 나아왔지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와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청년부 임원단 서기로 함께하며 청년부의 여러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보며 방향성을 준비해 왔고, 그 경험들이 올해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빛청년부는 말 그대로 ‘빛의 자녀들’, 빛나는 청년들입니다. 함께 사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라는 진리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 2025년 빛청년부 임원단



⌕ 2025 청년부 국내선교(영덕 산불 피해 지원)



⌕ 사랑하는 사랑부(사랑청년1부)

즐겁게 섬기는 공동체를 향해 - 사랑이 흘러가는 청년부

올해 섬김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즐겁게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숫자가 부흥의 척도는 아니지만, 청년부는 최근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며 변화와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서 부담을 느끼거나 기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즐겁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고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내세우기보다, 임원단과 가까운 곳부터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각자가 복음을 전달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돕는 초석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26년 이후 청년부에 세대교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다음 사람이 더 평안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고 싶습니다. 한 해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그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건강한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또한 저는 오랫동안 교회 장애인 사역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곳에서 사랑의 다양한 모습과 참된 의미를 배웠고, 많은 분들의 기도과 응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청년의 때에만 뜨겁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어져 누군가에게 다시 흘러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언제나 기도하고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이라는 자리가 빛나는 것은 그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믿음을 대하는 태도, 겸손

글 | 김다빈 청년기자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에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 한 달 동안 믿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겸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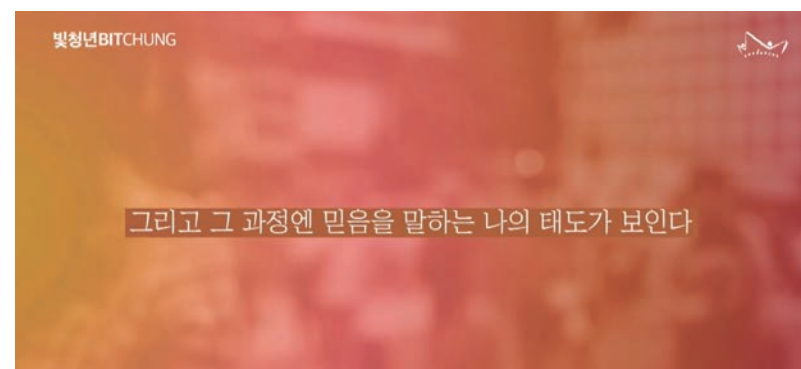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보여지는 모습은 내 삶의 모습과 내 마음의 중심을 유추하게 한다.”

때로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행동으로 표현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곧 나의 태도가 됩니다. 다른 이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생각의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합니다.

겸손과 교만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다른 이보다 많을 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결국 태도로 드러납니다. 나의 교만한 인식은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흘러나옵니다.



“잔치의 뒷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며.”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며, 자신의 옷차림을 거룩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표현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옷가지와 모습으로 ‘남들보다 우월한 신앙’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을 정죄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은 무엇일까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낮은 자리로 감을 다짐할 때, 나의 걸모습과 위치에 대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함에서 자유해질 때 우리는 모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나의 사회적 위치가 높든 낮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온전히 주께 맡길 때 우리는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 더 낮아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Q&A

사랑, 묻고 배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맺기

김다은 전도사님 편

글 | 조희성 청년기자

“사랑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청년의 때에 ‘사랑과 연애’만큼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주제가 또 있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나길 꿈꾸며 관계를 시작하지만, ‘이 사람과 정말 맞는 걸까?’ 싶은 갈등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온다. 머리로는 ‘믿음’을 붙잡아야 함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감정’이 앞서는 딜레마. 특히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과 헤어짐은 더 큰 고민을 안겨주고,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은 때로 상대를 판단하는 교만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좁혀지지 않는 생각의 차이와 헤어짐 이후 공동체에서 마주해야 하는 복잡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과 ‘신앙인의 성숙함’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할까?

설렘과 정죄감, 만남과 헤어짐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김다은 전도사님이 건네는 지혜로운 조언. 지금 그 대화의 문을 열어보자.



⋈ 김설아

김설아 청년 신앙의 관점에서,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연인과의 갈등은 이 별의 신호일까요, 극복해야 할 시험일까요?

김다은 전도사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정말 충분한 대화예요.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해보려는 시도 없이 “우리 안 맞아” 하고 결론을 내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두 사람에게 꽤 큰 부담이 되고 서로를 지치게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성숙한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면,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이 관계를 맡길게요.” 하고 내려놓는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아요. 물론, 상대가 내 생각을 일관되게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건강성’ 문제일 수 있어서 더 진지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요.



⋈ 손원

손원 청년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과의 연애가 깨졌을 때, 공동체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김다은 전도사 잘 만나고, 잘 헤어지는 것도 신앙의 성숙이에요. 교회 안에서 연애했다는 이유로, 헤어지면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잠시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감정 정리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정리했다면, 상대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길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는 게 훨씬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헤어지자마자 바로 새로운 연애로 뛰어들기’보다 이전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게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그리고 그 전 연인에게도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 김푸름

김푸름 청년 사랑하는 상대를 정죄하는 교만함이 발견될 때, 신앙의 눈으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회복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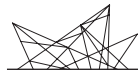
김다은 전도사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다시 붙드는 마음이에요. 처음엔 ‘이 사람이 신앙 안에서 좀 더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빨리 변하지 않고, 기대가 겹겹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사랑한다면, 내 기준으로 상대를 끌어올리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연약함을 품고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또 이런 마음이 자주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연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정죄의 마음이 올라왔는지, 상대는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관계가 성숙해질 때도 많아요.



⋈ 콕지훈

콕지훈 청년 그리스도인의 연애가 세상의 연애와 어떻게 달라야 하나요?

김다은 전도사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요즘 청년들의 연애를 보면 감정이 너무 앞서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 애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느끼면 만나고, 뭔가 기분 상하면 쉽게 잠수타거나 헤어지고. 혹은 누군가를 만나는 중에도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며 바람을 피우게 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 종종 보거든요.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지’ 묻고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해요. 감정만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평안, 지혜를 먼저 확인해보는 연애가 훨씬 건강하죠. 그러면 대화의 깊이도 달라지고, 판단도 신중해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더 넓어져요. 결국 더 성숙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강민혁

강민혁 청년 연애라는 달콤한 전쟁터에서, 청년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승리를 거두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김다은 전도사 저는 결국 주기도문의 한 구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연애에서 가장 흔한 ‘전쟁터’는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쉽게 흔들리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상이 되는 순간도 있고, 성적인 유혹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저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용기예요. 그리고 이런 연약함을 연인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연애는 이미 절반 정도는 ‘신앙의 승리’에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해요. 남은 절반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보호해주실 거예요.



⌘ 조낙원

조낙원 청년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기에 지금의 나는 얼마큼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김다은 전도사 저는 첫 번째 기준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가?’를 꼭 생각해 보라고 말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외롭고 공허하면, 누군가에게 너무 빨리 의존하게 되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쉬워요. 둘이 되었을 때도 그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사랑 앞에서 훨씬 분별이 빨라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지’도 자연스럽게 더 보이게 되고요. 만약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빨리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반복된다면, 지금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봐야 할 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건강하게 서 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도 제대로 갖춰질 거예요.



⌘ 김다은 전도사

이 시대에 ‘건강한 연애’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다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뉴스만 봐도 데이트 폭력, 가스라이팅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흔하게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연애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내가 건강해야 한다고’ 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여러분처럼 “내 배우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은 언제 보여주실까?” 하는 고민과 궁금증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가 서야 할 자리를 조금씩 바로잡아 가실 때, 그때에 맞춰 딱 맞는 사람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사랑하고 돌봐주세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이 건강하게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관계도 자연스럽게 열릴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을 시작해 가는 소식, 전도사로서 정말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문화 스케치

Life & Culture Snapshot

교회 안팎의 다양한 문화를 한눈에 만나는 공간, 문화 스케치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문학, 사진, 음식, 웹툰, 패션, 수어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스케치하듯 담았습니다.

함께 날아오르다

사진 & 글 | 전영의 기자



푸른 창공에 한 줄로 이어진 연들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태극 문양의 연들이 마치 하늘에 무지개 사슬을 걸어둔 듯 빛이 납니다.
저마다 다른 자리에 있지만
모두 같은 줄에 매달려 한 방향으로 힘껏 날아가는 모습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연은 77개.
그리고 그와 같은 줄에 이어질 연들이
땅바닥의 상자 속에 수북합니다.
상자 안에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연들,
과연 몇 개일까요?

연을 날리는 분은 오늘 준비한 연이 모두 144개라고 합니다.
한 줄에 매달린 그 144개가 모두 하늘에 오를 수 있을까요?

하늘 깊숙이 올라가 점이 되어가는 연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날아가 길을 열어주고,
누군가는 뒤에서 흐름을 따라 올라가며 균형을 맞춥니다.
또 누군가는 잠시 땅에서 때를 기다리지요.

우리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각자의 속도로 서로를 믿으며,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날아오르는 것.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연들처럼
우리 모두는 함께하면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빛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144개의 연이 모두 하늘에 올랐는지는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관계없이,
푸른 창공과 맞닿아 서로의 바람을 나누며 비행하던 그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유경환 「두물머리」 물은 거슬러 흐르지 않는다

글 | 김은숙 권사(수필가, 필명 김지형)

“사람들은 이곳을 두물머리라 부른다.”로 시작되는 유경환의 수필 「두물머리」는 어느 날 작가가 남양주의 운길산 일대를 여행하며, 산 중턱에서 시원하게 펼쳐지는 두물줄기가 만나는 장관을 관조하며 자연의 이치를 인간사에 대한 통찰로 심도 있게 승화한 명수필이다. 그의 글은 시인답게 서정적이면서도, 철학적 사유가 깊고 중후하다. 글은 그 사람을 닮는다고 한다. 작가 생전에 『수필문학』 사무실에서 몇 번 마주했을 때의 자상하고 부드러운 인품처럼 철학적인 내용의 글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풀어냈다.

만나고 만나면 큰 하나가 되는 것이 물이다. ... 만나고 만나서 줄기가 커지고 흐름이 느껴지는 것. 두 물이 만나서 하나의 물이 되는 것을 글자로 표기할 때 ‘한’은 참으로 크고 넓다는 뜻을 지닌다. 두 물줄기가 서로 껴안듯 만나 비로소 ‘한강’이 된다. ... 서로가 서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다.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어디 물뿐이라. 우주 만물이 다 그렇다. 들꽃도 나무도 꽃술의 꽃가루로 만난다. 식물은 봄·여름·가을·겨울의 계절적 제한을 받으나 사람은 계절에 종속되지 않고 그 틀을 벗어날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은 만남을 위한 기다림과 외로움을 반복하며 성숙해 간다. 때론 잘못된 만남으로 힘들 때도 있으나 이 시련을 통해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지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자기와의 만남일 것이다.

또한 ‘물은 개체를 만들지 않는다.’ 개체가 아니라 더 큰 하나를 추구하는 물의 정체성·통일성을 강조한다. 저 강물의 시작도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 낮은 데로 흐르면서 개울이 되고 시내가 되어 지금의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포용력, 앞길을 막은 것은 돌아서 흐르고, 거대한 바위를 만나도 비껴흐른다. 그러나 물은 결코 만만치 않다. 오랜 세월 그렇게 심 없이 흐르다 보면 바위도 깎아내리는 힘이 물의 위력이라는 것이다.

바다에 이르면 엄청난 힘을 지닌 승천이 가능해진다. 물의 승천이야말로 새롭게 다시 사는 실제 방법이다. 만약 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면, 지천이나 웅덩이로 빠져들어 말라버리게 된다. 이것은 물의 실종이거나 죽음인 것이다.

㉸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줄기가 만나 하나를 이루는 두물머리 전경



㉿ 저 강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깊고 넓은 포용력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도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남을 받아들이지 못해 홀로 고립되면 마침내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이치를 깨닫게 된다.

나는 어려서부터 ‘양수리’란 지명에 익숙했다. 요즘은 ‘두물머리’라는 순우리말 이름으로 흔히 불리며, 수려한 경관을 따라 유명 맛집, 화려한 카페가 즐비하여 많은 애호가들의 발길이 잦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가하기 이를 데 없는 농촌 마을이었다. 할머니의 친정인 양수리여서 할머니는 일 년에 서너 번씩 그곳을 다녀오곤 했다. 더구나 무슨 때이거나 특히 할머니의 생신날에는 양수리에서 예닐곱 명의 손님들이 찾아와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이 관례였다. 그들은 짚으로 엮은 달걀 한 꾸러미, 무거운 수박 한 덩이, 혹은 신문에 싸인 자반 등의 선물을 들고 왔다. 당숙 어른은 손수 농사지은 팔, 콩, 수수 등을 힘겹게 지고 오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너무나 소박하고 정겨운 농촌 서민들의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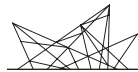
근래에는 성곶길에 두물머리가 바라다보이는 산을 자주 가게 된다. 가족묘가 팔당에 있는 천주교 공원묘지여서이다.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의 가파른 산등성이에 있는 묘지에 다다르면 두물머리가 만나는 푸른 강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히 장관이다. 언제부터인가 그곳에 오르면 유경환 작가의 수필 「두물머리」를 떠올리며 멀리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상념에 젖곤 한다.

물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흐르면서 부딪히고 나뉘었다 다시 만나고, 감히면 기다렸다 넘어야 하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결코 ‘상선약수 上善若水의 본’을 잃지 않으며 결코 거슬러 흐르지 않는다. 즉 최고의 ‘선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물의 철학을 깨닫는 심안心眼을 작가는 지닌 것이다.

낮에는 꽃들이 앓고 밤에는 별들이 앓는 숲이 아름답다고 여겼는데, 오늘 보니 두물머리는 그 이상이다. 조용한 물고기들 삶터에 날이 저물자, 하늘의 별이 있는 대로 다 내려와 쉼터가 된다.

밤이 오면 호수 위에 뜨는 수많은 별, 하늘의 별들에게 쉼터를 내어주는 바다의 깊고 넓은 포용력, 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자연의 섭리인가!

산소의 80%를 생산하여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바다, 그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만나고 만나서, 흐르고 흘러서 이루어졌다는 깊은 진리의 메시지를 「두물머리」는 우리에게 전한다.



고구마로 채운 달콤한 하루

글 | 고예님 청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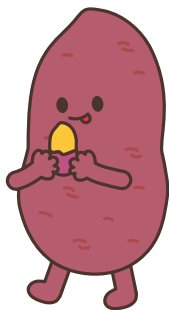
새해, 고구마로 시작하는 소소한 행복



⌕ 겨울철 대표 건강 간식 고구마

새해 첫 공기에는 어제와는 다른 설렘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거창한 목표나 계획보다 작은 행복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간식'이 있습니다. 겨울이면 유난히 꿀의 상큼함, 봉어빵의 달콤함, 고구마의 포근함이 떠오르는데요, 그중에서도 고구마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잠시 추위를 잊게 해주는 간식입니다.

오늘은 이 익숙한 고구마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방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삶거나 굽는 것에서 벗어나 고구마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간식을 소개합니다.



1. 겉바속촉 고구마 쿠키

저는 평소에도 쿠키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문득 "고구마로도 쿠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구마의 부드러움과 은은한 단맛이 쿠키와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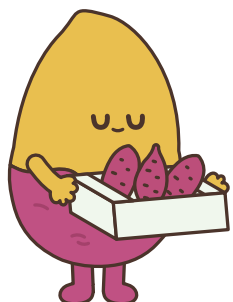
⌕ 전분이 붙지 않게 쿠키 모양 잡기

재료도 간단합니다.

깍둑 썬 고구마 2개 + 전분가루 + 계란 1개 + 소금 한 꼬집.

고구마에 전분가루와 계란, 소금을 섞어 반죽합니다. 쿠키 모양으로 잡아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서 약 20분 구워주세요. 그러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쫄한, 말 그대로 '겉바속촉' 고구마 쿠키가 완성됩니다. 저는 별도의 설탕 없이 만들었는데도 충분히 달았어요. 만약 더 달콤하게 드시고 싶다면, 굽고 난 뒤 올리고당이나 꿀을 살짝 발라보세요. 은은한 단맛이 더해져 더욱 맛있습니다.

» 고구마 쿠키



2. 바삭함을 담은 고구마 칩



⌕ 고구마칩

고구마를 얇게 썰기만 해도 감자칩처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시중에 파는 고구마 스낵을 좋아하지만 대부분 기름에 튀겨져 있어 마음껏 먹기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직접 만들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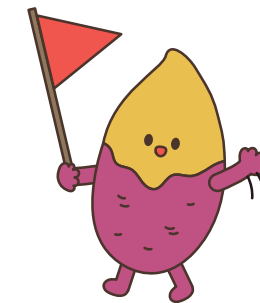
고구마를 얇고 균일하게 슬라이스합니다.

→ 두께가 같아야 골고루 바삭해져요!

물에 약 10분간 담가 전분기를 제거합니다.

→ 이 과정이 있어야 눅눅하지 않고 서로 달라붙지 않아요.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서 약 20분, 중간에 한두 번 뒤집어 구워주세요. 기름 없이 구워도 정말 바삭합니다. 느끼함도 없어서 계속 손이 가는 간식이에요.



3. 부드럽고 달콤한 고구마 케이크



⌕ 고구마 케익

고구마 하면 빠질 수 없는 메뉴, 바로 고구마 케이크죠. 전 처음에는 케이크를 만들려면 재료가 많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계란과 우유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더라고요.

고구마 3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폭 삶습니다.

믹서기에 삶은 고구마, 우유, 계란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단맛을 좋아한다면 꿀 한 스푼을 함께 넣어주세요.

찜기용 용기에 반죽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약 5분 돌립니다. 꺼내 보면 정말 케이크처럼 폭신하고 촉촉합니다. 시중 제품처럼 강한 단맛은 아니지만, 부드럽고 은은한 달콤함이 오히려 더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위에 휘핑크림과 고구마 칩을 올려봤는데,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작은 간식이 주는 큰 행복

오늘은 겨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간식, 고구마로 만든 디저트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늘 삶거나 구워 먹던 고구마였지만, 이렇게 다양한 간식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어요. 간단한 재료, 간단한 과정. 그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올겨울에는 따뜻한 고구마로 여러분만의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보세요.

광성은 천사를 입는다

『거자씨』가 천사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놀랐습니다

1

- 슈트 한 벌 | 10,000원
- 조끼 포함 쓰리피스 | 15,000원



2

- 반코트 | 10,000원
- 라이더 재킷 | 15,000원
- 치마 | 3,000원
- 부츠 | 10,000원



3

- 원피스 | 10,000원
- 부츠 | 10,000원



4

- 여성 자켓 | 7,000원
- 이너 티셔츠 | 3,000원
- 치마 | 3,000원



5

- 이너 티셔츠 | 3,000원
- 원피스 | 7,000원



6

- 가디건 | 7,000원
- 니트 | 3,000원
- 롱 스커트 | 5,000원



7

- 슈트 한 벌 | 10,000원



8

- 여성 한복 한 벌(속치마, 적삼 포함) | 15,000원
- 남성 한복 한 벌 | 15,000원

겨울 의상 준비는 천사가게에서~~

모델 | 이상세 집사님 가족
촬영 | 이용주 사진기자
진행 | 조희성 & 고예님 청년기자

이렇게 옷이 많다니!
이렇게 싸다니!
와, 완전 새옷이잖아!

BOOK AND BOOK

정리 | 강혜미 기자



가슴뛰는 교회론

저자 : 라원기 | 204쪽 | 14,000원 | 출판사 : 예영커뮤니케이션

이 책은 성도들이 교회를 성경적으로 깊이, 그러나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안내서이다. 교회론이라 하면 딱딱하고 어려운 면이 없지 않는데,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영적 가족, 거룩한 병원 등 성경이 제시하는 풍성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으며, 일상의 예화와 명확한 성경 해석으로 풀어낸 덕택에 신앙의 본질을 세움은 물론 교회의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 내 초신자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이중 감동

저자 : 임교신 | 248쪽 | 18,000원 | 출판사 : 샘솟는기쁨

신앙을 찾는 이들을 환대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관계 중심의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저자가 목회 여정에서 만난 다양한 에피소드를 묶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나누고, 섬기고,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 책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성도에게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본질을 다시금 떠올리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자 : 폴 스티븐스 | 역자 : 최동수 | 344쪽 | 18,000원 | 출판사 : 조이북스

20년 전 첫 출간 이후 꾸준히 사랑받았던 책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성경 속 등장인물 중에서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낸 야곱을 중심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영성의 길을 보여 주는 책이다. 야곱 덕후로 알려진 저자는 야곱에 대한 연구와 수많은 설교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 왔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야곱'이 되어 일상 속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수어

수어통역 | 문영원 권사(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장)

안녕하세요.

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이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짹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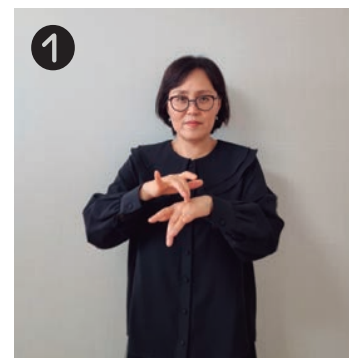
천사



왕



사탄



금식



'성경 컬러링 이벤트' 선정작 3점

지난호 이벤트 '이집트로 간 요셉' 컬러링 참여작 중 3점이 선정되었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 가는 요셉을 그리며 요셉이 형들에게 느꼈을 배신감과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강영희 권사

이집트로 간 요셉을 색칠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신세를 한탄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던 요셉의 삶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부족한 나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기도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미소 청년



저는 PC 프로그램으로 색칠해 보았습니다. 색칠하던 중 이집트로 끌려가는 요셉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담담해 보이는 건 체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마치 희미한 미소처럼 보이는 요셉의 표정에서 왠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미 주신 '승리'라는 엔딩을 알고 있기에, 모든 상황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김진아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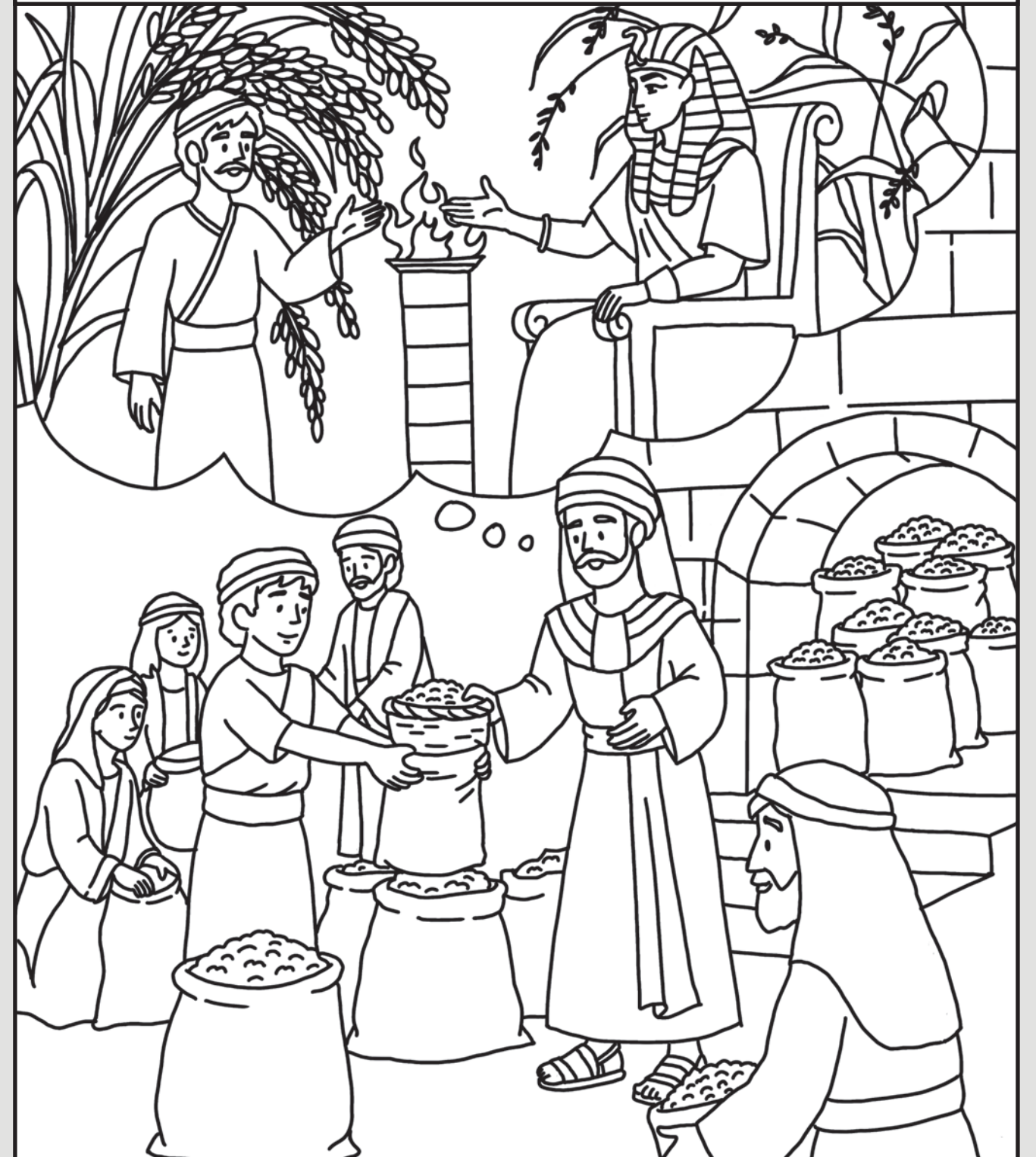


성경 컬러링

도안을 예쁘게 색칠하여 자신만의 컬러링 작품을 완성해 보세요.

완성작을 사진으로 찍어 『겨자씨』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우수작을 선정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컬러링 미션 마감: 2026년 2월 5일 | 보낼 곳: 010-8025-0549 | 참고: 성함, 연락처, 색칠하며 느낀 점도 알려주세요. 도안 | 조혜리

거룩양, 광성군

그림 | 김주희 작가
스토리 | 김형수 기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행복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편지 속에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겨자씨.

2026 WINTER
VOL.57

보내실 곳

1023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2010년 1월 13일 통권 57호

등록번호: 고양, 라00082

발행인: 곽승현

발행일: 2026년 1월 4일

인쇄: 삼정PNB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031-929-3347

중고등부 취재기자: 최아인, 태경환, 전하빈, 최은우

청년부 취재기자: 조희성, 고예림, 김다빈

장년부 취재기자: 김용기, 전영숙, 김형수, 정은숙, 우주희,

박길환, 임보미, 김은숙, 강혜미, 이수인

사진기자: 이종수, 이용주

책임편집: 조희경

표지 및 본문 디자인: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전영의

필리핀 어학연수 전문 유학원

다이버인에듀

연령별 맞춤형 연수코스 추천



다이버인에듀
카카오채널



다이버인에듀
네이버카페

“ 왜 영어는 필리핀일까? ”

☆☆가성비 좋은 1:1 영어 수업, 빠른 실력 향상!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

4대 영역을 선생님과 1:1 집중 학습!



시니어

40대부터 시니어까지
패키지여행 이제 그만!
영어로 소통하며
전세계 자유여행!



대학생

IELTS 및 토플
워킹 홀리데이
해외 취업 준비
자유로운 회화



주니어

단기 가족연수
주니어 캠프
ESL 코스로
영어를 한국어처럼



소통과 섬김이 있는 삶



메주꽃 요양원

- ☑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생활 공간
- ☑ 실·내외 CCTV, 자동 대문, 자동개폐출입문, 넓은 주차장
- ☑ 소수 인원으로 가정 같은 아늑한 분위기
- ☑ 요양시설 전문 영양사의 균형 잡힌 식단
- ☑ 요양기관전문 협력병원 지정으로 촘촘한 의료서비스 구축
- ☑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내포 IC 2분 거리
- ☑ 가정방문간호사, 상주 간호 요원 배치
- ☑ 계약 의사 방문 진료(2, 4주 수요일)

프로그램



치매 프로그램

노래교실
미술교실
이야기교실

여가 프로그램

놀이교실
실버체조
음악감상

인지 프로그램

학습지 활동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www.15779177.co.kr

진료내용

척추·관절·통증 치료



척추·관절·통증치료

든든한병원



든든한병원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척추·관절
클리닉

+

건강검진
클리닉

+

내과진료

+

운동치료

+

비수술
치료



진/료/내/용

- 정형외과
- 내과
- 건강검진
- 마취통증의학과
- 신경외과
- 가정의학과
- 영상의학과



진료시간 안내

※ 일요일·공휴일은 휴진

- 평 일 : 오전 9:00 ~ 오후 5:30
- 점심 시간 : 오후 1:00 ~ 오후 2:00
- 평일야간진료 : 오후 5:30 ~ 오후 7:30
- 토요일 : 오전 9:00 ~ 오후 1:00
- 내과/건강검진 : (평 일) 오전 8:00 ~ 오후 5:00
(토요일) 오전 8:00 ~ 오후 12:00



오시는길 안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 2로 60 (덕이동 1551)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50804-증-75298호

일산서구 하이파크 2로 60

대표번호 | 1577-9177 |